



▲여수시산타원정대 행사 '훈훈'

전남 여수시는 최근 삼해원 대강당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본부장 최영철)과 함께 '여수 산타원정대' 행사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최영철 본부장, 윤명훈 LG화학(주) 주재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후원증서 전달, 선물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여수/이남출 기자

알림 문화매일 전국주재기자 모집
전국종합일간지 문화매일에서는 적극적이면서도 진취적인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본지는 서울시 금천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사세 확장으로 인하여 함께 일할 참신한 인재들을 모집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
1. 전국 광고국 임원 특별대우
2. 채용인원: 전국 주재기자 및 본부장급 (전국 광역시, 서울, 경기, 인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3. 응시자격: 학력 성별 나이 무관 (경력자 우대)
4. 접수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5. 접수기간: 채용 완료시 까지
6. 채용방법: 직접 면접 (통신 면접도 가능)
7. 접 수 처: 총무국 (02)2612-2959 fax (02)2060-4147
8. 전 화 문 의: 대표전화.1899-9659 H.P. 010-6440-9898

文대통령 "특권의 정치·또다른 차별 반성해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오찬
"100년 전처럼 모두 함께해야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의 한반도' 이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또 다른 특권의 정치가 이어지고 번영 속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또 다른 신분과 차별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통해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천명한 민주공화제를 진정으로 구현하고 일체 평등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한 반성 위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길도 명확하다"며 "함께 이룬 만큼 함께 잘 사는 것이고 공정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함께 변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뿌리이기 때문"이라며 "성별과 계급,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어 함께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00년 전 그날

우리는 함께하였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함께하였기에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릴 수 있었다"며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의 한반도 또한 함께해야만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그간의 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3·1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아이디어를 국민 속에서 모아주셨고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을 그려주셨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쉽게 읽는 독립선언서" 제작 등 100주년 기념사업들을 언급하며 "100주년 기념사업 하나하나가 역사적 금지를 키우는 밑거름

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관순 열사 훈격 격상,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복원 등을 열거하고 "2021년 완공될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은 민주공화국 100년의 역사와 함께 이념과 세대를 초월한 임시정부의 통합 정신을 기리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100년은 미래세대들이 이끌어 간다"며 "정부는 미래세대들이 3·1독립운동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귀성 기자

경북 영덕 삼사해상공원내 호텔&리조트 건립된다!

경북도는 13일 영덕군청에서 영덕군, (주)현진건설과 총1,270억 원 규모의 '영덕 삼사해상공원내 호텔&리조트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호텔&리조트는 2022년까지 부지 21,959㎡에 지하2층, 지상10층 일반동과 지상4층 테라스동에 객실 320실과 수영장, 컨벤션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추게 되며, 현진건설에서 시

행하고 한화건설에서 책임 준공할 계획이다.
테라스 욕조를 갖춘 바다조망 가족형 객실과 힐링을 위한 야외 인피니티 풀, 실내 해수 사우나, 뷰티마사지, 골프연습장, 루프탑 바, 파티 휴게공간 및 지역 특산품 전시장을 갖춘 영덕 최대 규모의 5성급 호텔&리조트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텔&리조트는 영덕IC에서 자동차로 8분 거리에 있으며 영덕 오션비치 CC, 영덕대계 강구시장, 해상테마랜드가 인접해 있으며, 매년 해맞이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로 사시사철 관광객으로 붐비는 삼사해상공원 내에 위치하여 탁월한 임지를 갖추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덕은 동해바다 경관이 우수하고, 해맞이공원, 블루로드·문화관광부 1위 축제

2022년까지 영덕 최대 규모 5성급 수준 관광단지 충족으로 관광객 유치 기대돼
인 영덕대계 축제 등 무유형의 관광자원이 풍부해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대인의 관광니즈에 맞는 숙박시설이 부족했다"며 "호텔&리조트와 같은 고품격 관광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이로 인한 관광객 증가도 늘어나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1인가구 셋 중 하나 월 200만원도 못버ندا
43.8% 미혼·30, 40대 31.8%
만족감 23.3%, 삶 만족도 낮아
만혼이 늘면서 나홀로 사는 1인가구가 크게 늘었지만 소득수준이나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3가구 중 1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 못미쳤으며 만족감을 느끼는 가구도 5가구 중 1가구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1인가구의 35.9%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100만원 미만이 11.3%였으며 100만~200만원 미만은 24.6%로 집계됐다. 200만~300만원 미만의 경우 35.7%였으며 300만~400만원 미만은 17.1%를 기록했다. 소득 400만원 이상 1인가구는 11.3% 비중을 나타냈다.
1인가구의 53.2%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였으며 25.8%는 임시·일용직근로자로 조사됐다. 비임금근로자는 21% 비중을 보였다.
1인가구의 주관적 만족감은 23.3%로 다인가구 30.8%보다 낮게 나타났다. 1인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비중은 각각 18.1%로 전체 가구 11.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음식·숙박비 지출 비중도 1인가구가 16.6%로 전체 가구 13.9%보다 2.7%포인트(p) 높았다. 이는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 1인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외 나머지 분야에서는 1인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지출비중이 낮았다.
소득이나 삶의 만족도는 낮지만 1인가구는 대체로 자리잡았다.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1인가구는 585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29.3%를 차지했다.
1990년 1인가구 비중이 10% 내외였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 1인가구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은 높은 편이다. 세계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의 경우 47.5%가 1인가구였으며 덴마크, 핀란드가 각각 43.5%, 41.7%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7번째로 높은 1인가구 비중을 나타내 상위권에 속했다.
연령별로는 35~44세 미혼 1인가구 비중이 2015년 기준 74.4%에 달했다. 2000년 48.3%에서 26.1%p 상승한 것이다. 45~54세 미혼 1인가구도 2000년 15.5%에서 2015년 36.3%로 증가했다. 이는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면서 1인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만식 기자

아이들의 은빛설원 지리산
자연 속 겨울나라 낭우원
지리산바래봉 눈꽃축제 2019. 12. 28 ~ 2020. 2. 9
지리산허브밸리 동·동·동화 축제 2020. 1. 11 ~ 1. 27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촉구한다”

안병용 시장, 정부에 의정부 미군기지 조속한 반환 요구 국가주도 개발과 지원방안도 수립해 줄 것 강력히 주장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4곳 조기 반환 발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됐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정부 미군기지가 조속히 반환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민으로 이름으로 정부는 미반환 되어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조속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가주도의 개발과 지원방안을 수립해 줄 것과 오랜 세월 미군부대 반환을 기다려온 시민의 염원에 성의와 지

극한 정성을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이 지역에서 오셔서 미군공여지 조기반환과 국가의 특별한 배려를 공약하고 약속하신 바 있다”며 “청와대는 지난 8월 30일 26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로 의정부시민은 허망하고 아쉬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60년 넘게 묵묵히 안보를 담임한 곳에 대한 국가의 도리인가? 라고 물었다. 의정부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8개나 되는 주한미군기지가 있으며 지금도 의정부에 존재했던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넘는 3개 미군 캠프가 미군이 모두 떠났지만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정부는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과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 된 점 등을 고려해 조기반환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의정부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은 소극에 경 임기였습니까? 의정부시는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고 물었다. 그리고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피해만 해도 지역경제 피해규모, 세수손실규모, 이전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모두 더하면 의정부시의 경우 10조 가까운 손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런 의미를 잘 아시는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대선 경기도 1호 공약을 바로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로 정하신 바 있으니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시시오. 60년 넘게 미군부대를 안고 살아온 지역에 국가의 도리를 다해 주십시오”고 요청했다.

끝으로 안 시장은 “지난 6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의정부시의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조속히 반환해 주시면 우리 의정부시는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의 담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여수시, 옛 철길 공원 만족 1

전남 여수시가 시민 686명을 대상으로 전라선 옛 철길 공원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78%가 만족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10일간 모바일 앱 ‘시민소통광장’에서 전라선 옛 철길 공원 만족도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 24%가 매우 만족, 54%가 만족을 표했고, 보통은 20%, 불만은 2%로 집계됐다.

불만 사항으로는 벤치, 정자 등 휴식공간 부족, 청결상태 미흡, 오도바이·전동휠 무단통행, 반려동물 관리소홀 등이 나왔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은 구역을 나눠 2단계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만흥~양지바름공원 16.1km 구간으로 지난 2019년 9월 개통됐다. 2단계 사업은 (구)덕양역~대포~(구)울촌역 5.3km 구간이며,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수/이남철 기자

경북도, 어촌뉴딜 300으로 활기찬 바다 구현

경북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11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예산 등 총 933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2019년 4월 15일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시작하여 9월 9일 예비계획

제출까지 경북도와 시·군이 5개월을 준비하여 해양수산부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11지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1지구는 포함 '오도2리항 어촌뉴딜 사업'의 2개소, 경주 '나정항 어촌뉴딜 사업'의 1개소,

11개 지구 선정, 총 933억 원 확보 지역특성 반영, 어촌·어항 통합개발

영덕 '백석항 어촌뉴딜 사업'의 1개소, 울진 '울진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1개소, 울릉 '태하항 어촌뉴딜'의 1개소이다.

사업비별로 살펴보면, 포항시 3지구 사업비 265억 원, 경주시 2지구 사업비 156억 원, 영덕군 2지구 사업비 160억 원, 울진군 2지구 사업비 168억 원, 울릉군 2지구 사업비 184억 원이다.

경북도는 작년 공모사업에 5개 지구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594억 원 중 1차년도 사업비 208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승인 후 전국 최초로 2개 지구(포항, 경주)에 대해 공사 착공하고 어항기반시설(방파제, 안전시설 등)을 중심으로 생활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경북 동해안에 16개 사업지구 총사업비 1,527억 원 중 500억 원을 2020년에 투자하여 관광객이 넘쳐나는 활기찬 어촌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더 좋은 결과를 마련하고자 2020년도 예산에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1.7억 원을 확보했으며, 수산어촌·지역경제, 문화·관광·레저, 항만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북도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대상지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두환 경북도 해양수산 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기본적인 인프라 및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잠재력을 발현시키지 못하는 어촌지역에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며 “2021년 공모사업에는 더 많은 사업지구가 선정되도록 시·군과 협의하여 대응하는 등 공모사업 준비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광주시 재향군의회 '2019한마음단합대회' 개최



김재경 회장 “안보 대표 단체로 거듭” 만해기념관 전보상 관장과 협약식도

경기 광주시 재향군의회는 지난 12일 관내에서 내외 귀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한마음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현 광주시장, 소병훈 국회의원, 전 조억동시장 등 역대 회장단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재경 회장은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올 한해도 광주시향군 가족이 합심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안보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애써주어 감사하다. 2020년에도 변함없는 안보의식과 안보 대표 단체로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 신동현시장은 축하사에서 “재향군인 회원들의 안보활동은 물론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또한 해공신익회 선생은 민주평화상,분원,남중,퇴촌에 지난 9월 '새로운 경기 정책공부 2019, 경기 퍼스트' 대규모 사업부

문 본선에서 대상(100억 원)을 차지한 '경기 팔당 허브 섬 &휴(休)로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특히 지난해 광주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2020년 1월 1일 남한산성 새해맞이 행사에 경기도지사 까지 참석할 예정이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김재경 회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에 위치한 만해기념관 전보상 관장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연구하고 보전 교육 하는데 상호 협력, 발전 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한편 만해 기념관에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1926년판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조간본이 소장되어 있다.

또 남한산성전통무예수련원(원장 김동희)과도 협약식을 진행하고 전통무예 수련원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지원과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각 기관의 변역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 광주/남시현 기자

광주, 성장관리방안 시행

경기 광주시는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난 2017년 1월 오포읍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우선 시행했다.

성장관리방안은 미래 개발예측을 통해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역 설정을 유형에 따라 일반형과 유도형으로 구분했으며 건축물의 권장, 불허용도 설정 및 개발밀도에 맞는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 개발행위 허가 시 유형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기존의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기반시설 부족 및 경관훼손 등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남시현 기자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스마트시티로 조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교통·환경 주거문제와 시설 비효율을 해결

경기 평택시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이종호 평택시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시의원,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스마트시티 진행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환경·주거문제와 시설 비효율을 해결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스마트시티는 1단계 서정리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 2단계 행정타운 중심으로 개발, 3단계 국제교류특구 중심 개발로 나뉘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진행하고 있다.

회의에서 협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스마트시티 기본 시설인 교통정보·방범·재난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심귀가 앱 개발, 공공 와이파이 설치 확대, 미세먼지알림 서비스 등을 더 확대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했다.

또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스마트시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건립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장인 이종호 부시장은 “이번 회의가 평택시 스마트시티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당부했다. 평택/이등원 기자



www.huic.co.kr

하남 시민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습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 정기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주거정비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하남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율주행 및 태양광 선루프 기술 보유 해외기업 투자유치

인알파 루프 시스템즈 그룹과 '양해각서 체결' 상호협력키로 2천만달러 투자, 신규고용창출 200명,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경기도가 세계적인 자동차 선루프 제조기업인 '인알파 루프 시스템즈' 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화성시 장안1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최첨단 자동차 선루프 제조시설'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규모만 2,000만 달러 수준에 달하는데 2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성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요르그 부하임(Joerg Buchheim) 인알파 그룹 회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박세현 인알프코리아 대표이사, 오진택 도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MOU 체결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첨단 자동차 선루프 제조시설 투자 양해각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 결정을 통해 지역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기업활동에 있어 시간이 매우 중요한 가치인 만큼 신속하게 공장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성시와 함께 힘을 합쳐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기업의 성공이 곧 경기도의 성공이자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유효한 길이다. 투자기업의 성공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요르그 부하임 인알파 그룹 회장은 "첨단산업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모여 있는 경기도에 투자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 화성 장안1 외국인 투자지역에 새로이 설립될 제조시설은 미래 세대 자동차 개발과 생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인알파 그룹은 약 2,000만 달러를 투자해 화성 장안1 외국인 투자지역 내 자동차 루프 시스템 제조시설 확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도는 인알파 그룹이 투자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허가 사항을 지원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협약서에는 구체적인 투자규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함께 명시됐다.

화성 지역에 들어서게 될 제조시설은 자율주행자동차 보조시스템과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절감 시스템 분야의 독보적 선진기술을 보유한 인알파 그룹의 주력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도는 인알파가 세계 5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와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성 지역을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메카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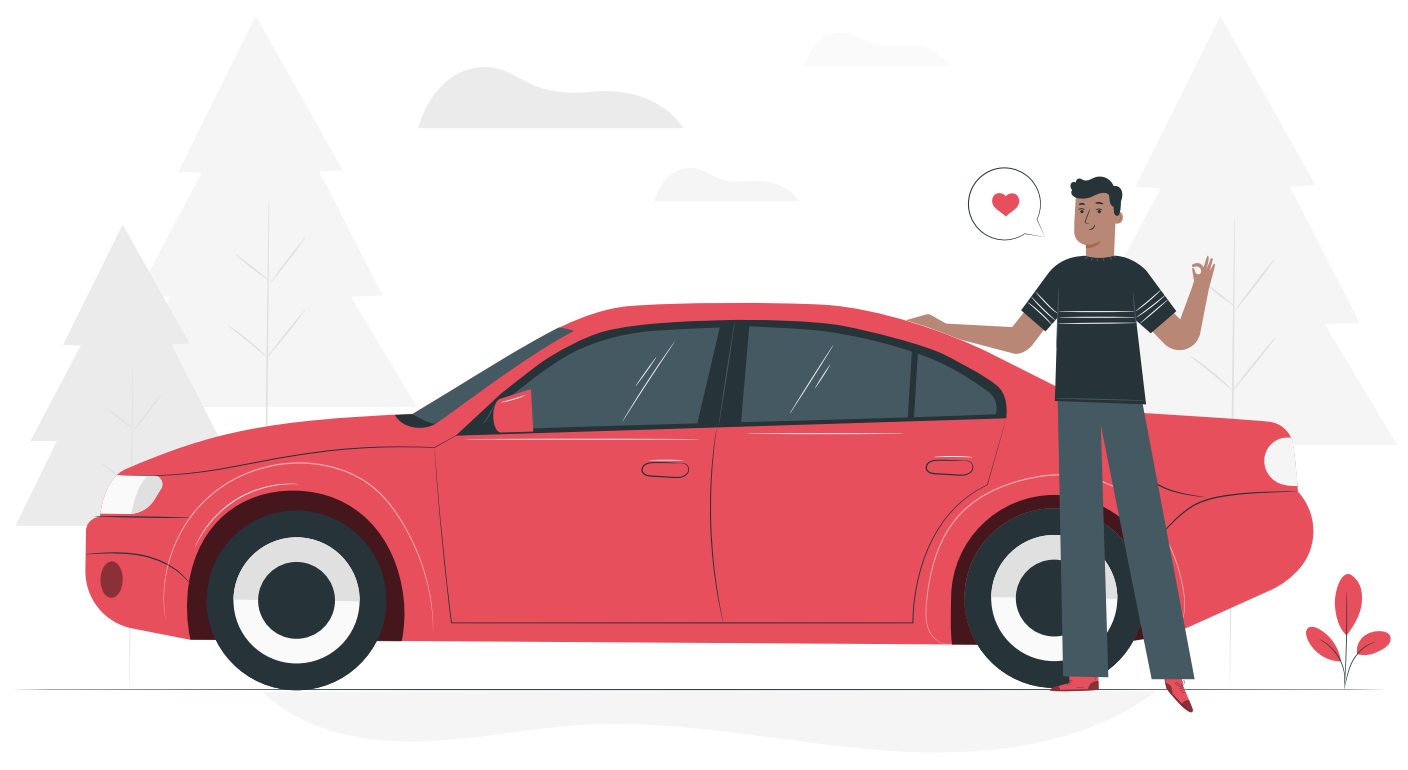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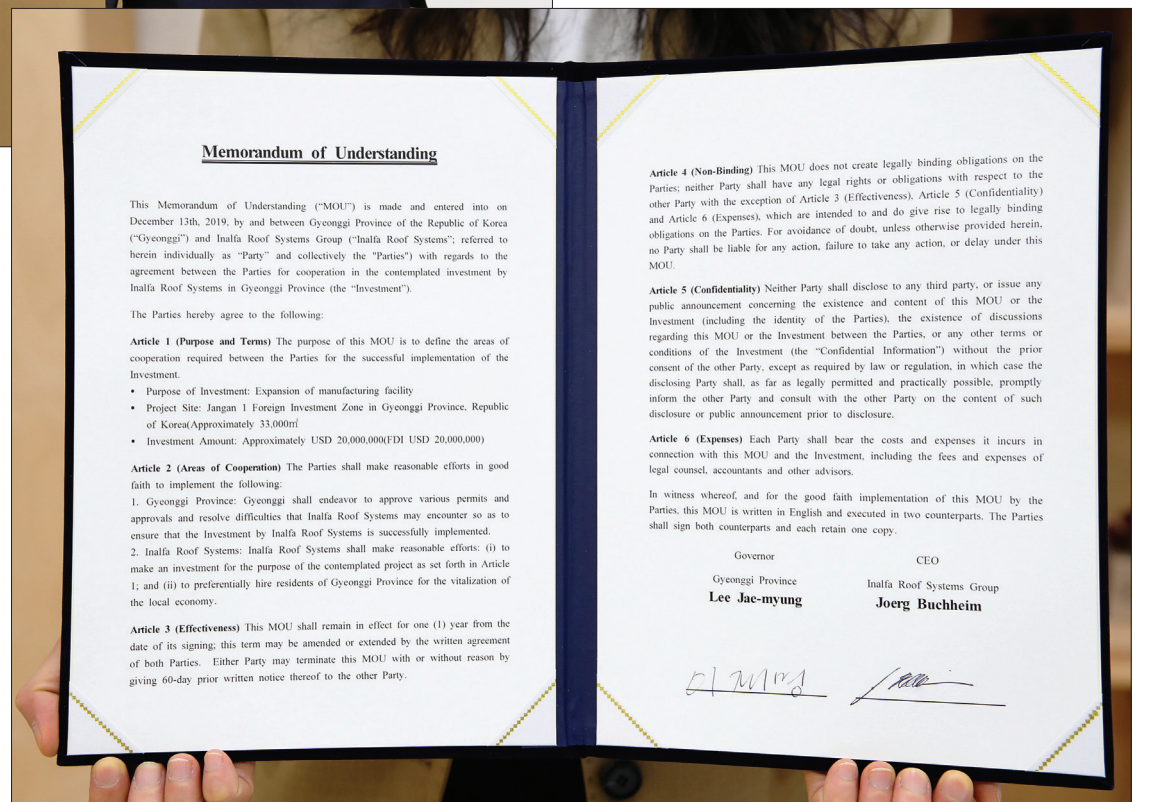


차와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성 지역을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메카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알파 그룹은 지난 1946년 금속가공업체로 창립했다. 1974년부터 주력제품인 선루프 생산에 착수, 현재 세계 2위의 선루프 제조업체로 자리매김했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솔라루프'와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인 '첨단운전 보조시스템(ADAS)'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최첨단 설비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5년 화성시 마도 산업단지 내에 설립된 인알파 코리아는 인알파 그룹과 동양기전의 합자회사로 2008년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등록, 현재 현대 기아와 한국 GM등에 선루프를 납품하고 있으며, 2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수원/김재일 기자



경북도, 내년 국비 7,777억 증액 'TK패싱은 없다'

총 4조4,664억 전년 대비 21.1% 증가, 신규사업 기술자립예산 한몫 전국 생활형 SOC예산 2위에 이은 쾌거, TK특위·경북도간 협력강화



경북도의 내년 국비가 7,777억 증액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권 국회의원)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권 국회의원)와 경북도가 공조를 통해 국회 증액예산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

어 올해에도 전년 대비 21.1% 증액된 4조4,664억 원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북도 국비는 지난해 3조6,887억 원보다 7,777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TK특위를 조

기 가동한데 이어 지난 9월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하고 핵심소재 기술자립 예산확보를 포함한 국비확보 방안을 논의한 3차 경북도·TK특위 간담회 이후 경북도와의 끈질긴 공조를 통해 이룬 성과로 해석되고 있다.

또,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와 5G기반 VR·AR디바이스 센터, 포항 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연구개발과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를 비롯해 남부내륙철도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간선도로 건설 등 총 36건 910억 원의 신규사업도 국비 증액에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SOC분야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5,460억 원,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3,797억 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3,185억 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1,139억 원 등 8건, 연구개발분야에 백신글로발산업화기반구축사업 232억 원,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76억 원, 경북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56억 원 등 7건, 농림수산분야에 포항영일만항 건설 214억 원, 스마트팜 혁신 벨리 조성 119억 원, 백두대간생태축복원사업 23억 원 등 6건, 문화분야에

안동 임청각 복원사업 14억 원,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 20억 원 등 4건, 환경분야에 성주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10억 원, 비점오염원저감사업 163억 원 등 4건, 복지분야에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91억 원,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 10억 원, 대성그린빌 이전신축사업 21억 원 등 총 318건에 4조4,66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국비확보는 지난10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내년도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 선정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945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한데 이은 쾌거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 기반구축은 물론 서민생활 개선과 시민들의 복합 생활공간 마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대만 도당위원장은 "이번 성과는 '경북실용주의' 가치를 내걸고 경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여야를 떠나 경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철우경북도지사의 위기관리능력 이 만난 결과"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북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새로운 청사로 이전!

2,349m 2~3층 건물, 32대 주차공간 사무공간·대회의실·소회의실 등 갖춰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에서는 신청사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5일 사무소를 이전한다고 밝혔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신청사(경북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794)는 전체건축 연면적 2,349m², 3층 건물로 총 32대의 주차면적으로 하는 한편 장애인/임상부전용차 완비, 전기차완속충전기 등을 보유하고, 사무공간과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커뮤니티홀 등을 갖추고 오픈 하게 된다.

12월 13일부터 이전을 시작해 16일부터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공물관리 공간구축에서 나아가 탐방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편의시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풍기를 수월리에 위치한 기존 청사는 1987년 소백산국립공원 지정 후 33년 동안 묵묵히 희방 코스의 입구를 지켜왔다. 그러나 지난 1990년 희방계곡 수해 이후 건물의 급격한 노후화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6년부터 신청사 이전 계획을 추진, 지난 12월 4일 신청사 준공을 마무리했다.

기존 사무소건물은 철거 후 국립공원시설로 복원할 예정이며, 탐방 안내를 위한 희방탐방지원센터는 변함없이 이용가능하다.

이현태 소백산국립공원 행정과장은 "사무소 이전을 위해 애써주시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사무소의 접근성이 더 좋아진 만큼, 앞으로 지역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상생할 수 있는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영주/정승초 기자

포천시, 2020년도 본예산 7,729억 원 편성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 통한 시민이 공감하는 재정투자 확대

경기 포천시는 2020년도 살림규모로 7,729억 원을 편성해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6,007억 원보다 28% 정도 증가한 규모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총 7,093억 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 1,288억 원, 세외수입 283억 원 등 자체재원 1,571억 원과 지방교부세 2,483억 원, 조정교부금 827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12억 원 등 의존재원 5,522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 안전 및 환경 등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

업과 현장여건,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운영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재정투자를 확대 하도록 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선7기 시정 주요사업 성과 창출을 위해 재정투자 사업 등 민행행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박윤국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감축하고 이에 절감된 예산은 시민 편의사업에 재투자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영근 기자

경남도, 2020년 어촌뉴딜사업 공모 '역대 최대 선정'

2020년 어촌뉴딜300해수부 공모에 참여 창원시 '삼포항' 등 국비 1,548억 원 확보해

경남도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어촌뉴딜300사업, 기항지 개선사업, 내륙어촌 재생사업' 공모에 역대 최대인 28곳이 선정되어 국비 1,548억 원을 확보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최종 대상지는 해양수산부의 서면 발표 평가(9.30~10.8.)와 이어진 현장평가를 토대로 총 120개소가 선정됐으며,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16개소, 내륙어촌 재생사업으로 7개소가 선정됐다.

경남도는 어촌뉴딜300사업에 창원시 삼포항을 비롯해 50개 지구를 응모해 역대 최대인 23개 지구가 최종 선정됐고, 이외는 별도로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4개 지구, 내륙어촌 재생사업으로 1개 지구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기업 유치 등 많은 사업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도민들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에 이어 3,072개의 일자리 창출로 '성장 거점'으로의 탈바꿈이 예상된다.

그동안 경남도는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워크숍 개최, 찾아가는 현장자문단 운영, 마을기업 멘토-멘티 멘토링사업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으며, 그 결과 어촌뉴딜300사업 23곳을 비롯해 총 28곳이 선정, 국비 1,548억 원 확보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 결과를 보면 어촌뉴딜 300사업에 △ 창원시 삼포항, 시락항, 안성항, 진동항 △ 통영시 내지항, 달야항, 봉암항, 영운항, 학림항 △ 사천시 낙지포항, 중촌항 △ 거제시 도장포항, 산전항, 예구항, 저구항 △ 고성군 당동항, 당항항, 동문항 △ 남해군 상주항, 장포항, 지족항 △ 하동군 구노량항, 대도항 등 23곳이 선정되었으며,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 통영시 대항항, 동부항, 동좌항, 북구항 4곳이 선정되었으며, 내륙어촌 재생사업으로 △ 하동군 섬진강이 선정됐다.

한편, '어촌뉴딜300사업'은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을 재생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공모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경남도는 37개 지구를 신청해 창원시 주도항 등 15개 지구(총 사업비 1,775억 원)가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초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올해 경남이 어촌뉴딜300사업에 23곳, 기항지개선사업으로 4곳, 내륙어촌 재생사업이 1곳이 선정되어 국비 1,548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기업 등 경제조직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사업 집행에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순천 '교육부미래형 교육자치' 선정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고 12일 밝혔다.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은 마을-학교, 지자체-교육청 연계를 위한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마을교육자치회 활성화, 교육과정 혁신 등을 과제로 한 사업으로 우리 시는 '연계, 협력, 공유 기반 지방교육자치 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교육자치협력센터 구축, 학교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통합 및 연계정책, 학교교육과정 지역화를 추진과제로 응모해 선정됐으며 신청금액 2억 원 전액 지원받게 됐다.

특히 기존 지자체에서 민간위탁형태로 구축한 중간지원조직 순천풀뿌리교육자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 배치 및 자원분담 확대를 통해,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로 기능을 강화해, 아동, 청소년, 성인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정책에 대한 기관 및 부서별 연계 강화, 특히 평생교육을 주축으로 교육을 통합적으로 설계, 학교교육, 세대통합형 교육 등 협력·공유 사업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합적 관점에서 자원을 엮고 공간을 이은 연계 기반 교육시스템 구축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치 강화, 지역의 차별화된 주제 중심으로 학교교육과정 개발 운영 될 것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순천/최경희 대기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사업 착수식 본격 추진



우량기업유치 위한 신호탄 계기 마련 3가지 산업 테마를 중점적으로 유치

경북 영천시의 산업용지 공급단을 풀 해결사,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영천스타밸리)'가 본격 조성된다.

영천시는 15일 경북 영천시 녹전동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부지에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의 착수식을 개최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착수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만희 국회의원, 도·시의원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역 내 조성이 완료된 유일한 산업단지인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면서 추가 산업용지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착수식은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후 정제되어 있던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산업용지가 부족한 영천시에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우량기업 유치를 발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대기로 일원에 122만㎡(37만평)의 규모로 조성중이며

스마트 모빌리티 부품산업, 항공·자동차 인테리어산업, 스마트 링크(Wire/Harness)산업 등 총 3가지 산업 테마를 중점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은 행정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제공 및 쾌적한 정주여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포항고속도로 북영천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 기업들에게 민감한 물류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영천시 출자 R&D기관인 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과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바이오메디칼기술센터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단지 내 기업들에게 원활한 기업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다.

올 7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얻었고 현재 보상절차에 있다. 지금까지 40%정도의 토지 보상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천/정승초 기자

여주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단계 상승

외부청렴도 및 부패사건 발생 없어

경기 여주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보다 1단계 상승한 3등급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종합청렴도 상승 주요 요인으로는 계약상대방,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부패경험 및 인식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감점이 없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을 처리 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분야 중 10개 항목에서 7.93점을 받아 전년 대비 0.23점 상승했고 내부청렴도에서는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했으며 특히 인사와 관련해

급품, 향음, 편의 제공이 있었으나의 경험, 빈도, 경험률 모두 10점 만점을 받아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이항진 여주시장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청렴의 기본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고위공직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의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고 공직자와 시민이 참여·소통·공감하는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결과를 시민들의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목적으로 엄중하게 받아 들인다"며 "올해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한 시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남시현 기자

정종순 장흥군수, 주재기자 송년간담회 개최

내년 군정 운영 방향 모색 초점 맞춰 도시민 유치 위해 도시민타운 검토중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가 지역 언론인을 초청해 '2019년 주재기자 송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장흥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는 지역 언론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자유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 간담회는 각종 군정 현안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향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종순 군수는 "군민의 눈과 귀인 언론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정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고자 한다"며 "지역 현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나누길 바란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날 참석 언론인들은 지역 인구 늘리기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 먼저 질문을 남겼다.

정 군수는 "도시민 유치를 위해 도시민타운을 검토하고 있다"며 "남도대학을 군에 편입시켜 귀농사관학교를 세우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젊은 부부 유치를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확보와 관련해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소방의 매카, 국가위인공원 조성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제도에 올르면 좋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흥을 시가지 교통 혼잡 대한 대책도 관심이 집중됐다.

정 군수는 "미르채아파트에서 장흥중학교 사이의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외곽으로 순환할 수 있는 4차선 도로 공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정길 기자

與 의총 '선거법 개정안' 토론 "연동 비율 낮춰야" 목소리

민주당 제외한 다른 군소정당은 반대 입장 본회의까지 4+1 합의안 만들까 '관심집중'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오후 본회의의 상정을 예고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연동형 캡'에 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실상 '4+1 협의체' 내 다른 정치세력의 요구와는 상반된 주장이 전개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협상을

이러한 '4+1 협의체'는 선거법과 관련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4+1 협의체' 논의에서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연동형 캡(cap)' 논의가 최대 쟁점이다. 비례대표 의석 중 '캡'을 씌운 일부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비례 50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게 되면 '캡'을 씌운 의석 수에만 연동률 비례대표를 배정하고, 남은 의석에는 현행 대로 정당 득표 비율로 의석을 주자는 것이다.

캡 의석 수는 25석 또는 30석이 거론되고 있으나, 군소정당이 반대 입장을 꺾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250석 대 50석으로 해서 캡을 씌우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50석의 연동 비율을 '25석 대 25석'에서 '30석 대 20석'으로 조정하고 20석에 캡을 씌워서 연동비율 자체를 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비례의석과 연동률 비례의석을 25석 대 25석으로 하자고 했다가 20석 대 30석으로 하자

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며 "우리는 그 반대로 연동률 비례의석을 20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당론으로 결정이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론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변인은 '석패율제'와 관련하여도 '석패율제를 없애자는 공감대가 있었냐'는 질문에 "저희의 입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원안의 정신은 지역편중을 정리하고 의석을 골고루 반영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사실 '석패율제' 도입 자체가 중진살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회까지 '4+1 협의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봐야 한다.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을 통해 오후 3시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개회하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 인재영입위 설치, 이해찬 위원장 지휘



▲ 이해찬 당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재영입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각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인재 영입을 전담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영입할만한 인재를 적극 추천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제한 보안 등을 위해 인재영입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의원들 누구나 영입하고 싶은 인재를 각자 대표에게 추천하도록 독려한다. 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재영입 위원 없이 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의원들이 각자 위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입 인재 발표 시점으로는 다음 주가 거론된다. 영입 인사는 스포트라이트를 충분히 받고 총선 흥행 효과를 내기 위해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한국당 "철없는 골목대장 민주당" 비판



▲ 삼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 협상을 두고 "국회운영이 가히 '옛장수 스타일'이라며 "국회회출 예정증명서"라고 발끈해 쥐어줬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아들이던 예정증명서에서 착안을 했는지(더불어민주당은) 정작 국회 제1야당은 배제하면서 '창당 예정자'들과 함께 예산안과 법안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철없는 민주당 골목대장과 추종자들이 국회의 주인인 국민들 몰래 의회민주주의를 의석수 뒷거래와 옛 바꾸듯이 바꿔버렸다"며 "철부지 어린애가 집에 귀한 게 뭔지도 모르고 옛장수 꼬임에 넘어가 옛 바꿔먹는데 지금 국가가 딱 그쪽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철부지 같은 행동을 말려야 할 국회의장은 옆에서 옛 한 조각 달라져 거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제1야당과의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더니 이제 임시회 회기결정도 여야 합의 없이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벌어질 필수 쟁점이 임시회 회기는 '릴레이 날리기'를 대놓고 하겠다고 영포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발만 동동' 변혁 안철수계 비례의원 7명... 어디로 가나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변혁)이 '새로운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변혁 내 안철수계 의원들은 신당 합류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들의 행보는 안 전 대표의 메시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안 전 대표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는 발만 동동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철수계 의원들은 신당명을 두고

불만이 변혁으로 유지돼왔던 유승민·안철수 동맹의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안 전 대표 측 인사들은 "안 전 대표가 신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향후 행보에 대해 "안 전 대표의 메시지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고민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안 전 대표 측 인사들은 안 전 대표에 대한 불만 역시 토로했다.

당장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7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역구 선거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소속 정당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얼굴만 알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다.

변혁 내 일각에서는 결국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의 신당 합류가 불가피할 것이라 주장도 나온다.

안 전 대표의 침묵은 지난해 7월 지방선거 참패를 이유로 한국을 떠난 이후 1년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수인 안철수계 의원들은 주요 국면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줄 '좌장'급 인사가 필요하지만, 안 전 대표에게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

“안, 신당참여 가능성 많지 않아”
안측 “12월 중 메시지 나올 것”

한 비례대표 의원들의 불만도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혁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 전 대표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결국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당 창당 작업이 사실상 유승민계 인사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 전 대표의 침묵은 합류 이전 목소리를 키우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안 전 대표 측 한 인사는 "17일에 예비후보 등록일이고, 이제 총선 일정에 돌입하는 만큼 무슨 얘기가 있지 않겠냐"라며 "12월 안에는 (안 전 대표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안 전 대표 측 인사인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13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를 통해 "안 전 대표의 불참 의사는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당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다만 당내 혁신을 위해 변혁으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잘 되시길 기원드릴 뿐"이라며 "변혁 이후 해법을 달라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고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UIJEONGBU CITY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의정부는 시민과 호흡하며 도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 폐손상물질 '비타민E 아세테이트' 검출



국내 유통 153개 제품 검사, 대마유래성분은 검출 안돼 비타민E 아세테이트 임의첨가 및 사용금지 추가 권고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 성분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 질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분(비타민 E 아세테이트)이 검출됐다.

또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도 일부 제품에 검출되었으나,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발생한 중증 폐 손상 환자의 대부분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인 대마유래성분(이하 'THC')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THC 등 7개 성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는데,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와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다만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 시 매우 적은 양이다.

이밖에도 가향물질 3종에 대해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이중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식약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어 미검출 제품들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두 성분에 대해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내년 상반기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등 외국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유해성분 분석과 함께 폐손상 사례 감시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장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백귀성 기자

'봉화군, 희망2020 집중모금 가두캠페인' 실시



이웃사랑 실천 모금 적극 동참 호소해 각종 이웃돕기 모금 창구 접수도 병행

경북 봉화군은 최근 봉화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나눔봉사단, 여성단체협의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0 집중모금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 봉화군 나눔봉사단이 주관하고 봉화군이 후원하여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 각 기관·단체와 기업체, 지역주민 등에 이웃돕기 성금 모금, 사랑의 열매달기, 가두 캠페인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 모금에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그리고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는 '희망2020 나눔캠페인'은 사랑의 전화 ARS 모금, 3개방송사 MBC, KBS, TBC 성금창구, 경북 1도민 1나눔 등 각종 이웃돕기 모금

창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모금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접수되어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각종 지원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이날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9년 봉화군에 지원한 배분액 4억3,000만 원과 차관 1대에 대한 전달식과 경북아너소사이어티 효심요양원 관영만 대표의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을 봉화군에 기탁하는 전달식도 가졌다.

엄태환 군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따뜻한 손길과 온정을 보내주시는 기부자님들의 정성으로 기부문화 정착에 초석이 되었고, 우리 지역에서 모금된 성금이 공적하고 투명하게 배분되도록 더욱 힘쓸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금 모금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봉화/정승초 기자

10년간 미세먼지 줄었다는데 '나쁨' 날은 더 늘어

통계청 "국민 90% 미세먼지 악화" "먼지 농도 '매우나쁨' 빈도는 증가"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 측정치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한 날에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해 미세먼지 '나쁨' 날의 빈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한국의 사회동향'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민의 90% 이상이 10년 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된 것으로 인식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점진적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1년 60μg(마이크로그램)/m3에서 2018년 40μg/m3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5년 26μg/m3에서 2018년 23μg/m3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보고서는 "2015년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서울시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기준 상 '매우 나쁨' 수준을 넘는 빈도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대기질 악화의 원인으로 '풍속 감소'와 같은 기후변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한반도 주변의 풍속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강풍의 빈도가 줄어들어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대기환

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유발 요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후 경유차라고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보고서는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감소하였으나 대기 중의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08년 42만8204톤에서 2016년 45만2995톤으로 5.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유 차량의 주행거리도 최근 6년 동안 35%가량 증가했다"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노후 경유차량 감소 및 친환경차량 증가 노력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승재 기자

번개처럼 빠르게 저장하다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 Thunderbolt™ 3 외장 스토리지

Thunderbolt™ 3 기술과 NVMe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는 전문 콘텐츠 제작자에게 필요한 눈부신 전송속도를 선사합니다. 슈퍼카를 달은 세련된 디자인, 첨단 열 처리 기술과 암호화 기술로 완성한 최상의 스토리지를 경험해보세요.

* USB 인터페이스 기능만 지원하는 PC에서는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Thunderbolt™ 3 포트가 설치된 Macs 및 Window PC에서만 호환 가능하며, 호스트 구성에 따라 성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Mac OS X Sierra, High Sierra 10.12 또는 그 이상, Windows 10 64 bit RS 2 또는 그 이상) 최대 읽기/쓰기 속도 실험 시스템 환경: Dell Alienware System (Dell 17 Alienware 17 R5), OS - Win 10 x64, CPU - Intel® Core™ i7 8570H(4.1GHz), Memory - DDR4, 16GB 2667 MHz, BM Tool - CDM 5.1.2

X5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세요.



영주, 사람 마음까지 이어줄 교량, 평은리교 개통



교량연장 480m, 폭 5.5m 준공식 가져 타 지역 주민과 원활한 교통인프라 구축

경북 영주시 평은면 소재, 평은리교가 개통 기념 준공식을 개최했다.

최근 평은리교에서 가진 이날 준공식에는 장육현 영주시장을 비롯해 이종호 영주시의장, 임무석 도의원, 송영애 위원장, 이상근 시의원, 이경희 K-water 영주담지사장, 이세종 평은면장 등이 참석해 평은리교 개통을 축하했다.

개통식을 가진 평은리교는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3-16번지(평은면 다목적광장 뒤) 일원에 교량연장 480m, 폭 5.5m(확폭부 6.8m), 접근도로 258m로 건설됐다.

옛 평은리교는 내성천을 가로지르는 최초의 교량으로서 5번국도와 150여 호의 평은리 주민들을 50여년간 이어주는 소통의 줄기였으나, 영

주담 건설로 교량이 수몰되면서 타지역과의 소통이 단절될 위기였다.

이에 700여 명의 평은면민과 출향인사들이 합심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2016년 8월 교량건설의 초석을 마련했다. 2년에 걸쳐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침내 평은리 주민들의 소통의 줄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는 평은리교의 성공적인 건설을 축하하기 위해 영주시장, 도의원, 시의원, 평은면 각 마을 이장, 주민 등 다양한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경과보고, 참석 내빈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장육현 평은리교 추진대책위원장은 "평은리교가 면민들과 타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물리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심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주/정승초 기자

순천, 보안등으로 밤거리 밝아

전남 순천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동천 밤거리를 거닐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동천 산책로를 중심으로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금년부터 내년까지 용당교에서 꿈의다리 8km 구간에 보안등이 설치된다. 금년 12월까지 동천 오른쪽 삼산동 용당교에서 풍덕동 꿈의다리 4km 구간에 보안등 107개를 설치하고 2020년에는 동천 왼쪽 용당동 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오천동 동천교까지 4km 구간에 111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순천시내 중심부를 흐르는 동천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도심 하천으로 오랜 시간 잘 가꾸어져 수달이 살만큼 깨끗한 수질과 좋은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동천변 산책로 보안등설치는 시민들이 많이 야간에도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의 안전한 시야 확보와 함께 야간 경관에도 한몫을 함으로써 활기찬 도시이미지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천시 임종필 안전도시국장은 "2020년까지 보안등 설치 후 사업성과 시민들의 호응도를 검토해 용당교 상류와 꿈의다리 하류도 보안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동천이 밝아져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순천/김영만 기자



▲ 여수 낭만포차 최혁동 사장 '하루 수익금 전액 기부'

전남 여수시 중화동에서 낭만포차(장군도 밤바다에 꽃이다)를 운영하는 최혁동 사장이 하루 수익금 전액을 국동 주민센터에 기부했다. 국동 주민센터는 수익금을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후 국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최 사장은 "관광객과 시민에게 받은 사랑을 환원하고, 소외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이남출기자

경주시 노인일자리사업, 불법촬영 이제 그만

불법촬영카메라 감시사업단 활동 중
교촌마을 등 공중화장실에 대한 감시

경북 경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해 불법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 보호와 불법촬영범죄 예방 및 상시 점검체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불법카메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30대의 불법촬영영상비감시기를 사적관리과, 도시공원과, 읍면주민센터 등에 보급해 정기적으로 다중이용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하고 있다.

현재 111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매주 혹은 매월 단위로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시활동을 위해서 경북노인복지문화센터(☎ 776-2220) 노인일자리사업단과 연계해 불법촬영카메라감시사업단을 운영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 20명으로 구성된 사업단은 4인 1조로 황성공원, 교촌마을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감시활동과 경주시 교육청의 요청으로 관내 초·중고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설치 관련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서정보 복지지원과장은 "날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에는 감시사업단 및 점검 대상 공중화장실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성승초 기자

안성시, 2019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승강기 설치 대수 2,800대 넘어서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 실시

경기 안성시는 제28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문화 캠페인과 함께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야양시티프라자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 일원에서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안성시 의용소방대,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소장, 안성 소방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불법 주정차 예방과 승강기 탑승자 안전수칙을 위한 주제로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어서 2019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최근 승강기 노후화와 유지관리 및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승강기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승강기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관계기관 간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별 초기 대응능

력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안성시는 2019년 현재 승강기 설치 대수가 2,800대를 넘어섰으며 승강기 사고는 매년 25건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인명사고는 3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안성시의 도시화와 건물의 고층화로 승강기 대수가 증가하고 있어 승강기 사고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의 강화 및 안성시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승강기 고장 발생 시 초기대응이 기때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시한 실질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안성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주기적으로 합동 훈련을 실시해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확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이동원 기자

대한항공, 항공권 결제에 마일리지 마음대로 쓴다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우수 회원제 진입장벽 낮춰 내년부터 거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화된 공제기준

대한항공이 항공권 구매 시 현금 및 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구매 시에는 '지역'이 아닌 '운항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가 공제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내년 11월부터 시범운영되는 마일리지 복합결제다. 항공권 구매 시 유류할증료와 세금권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운임의 80% 이상을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복합결제

최소 이용한도는 500마일이다. 공제 마일리지 규모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현금·카드 외에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때 마일리지 가 실제로 얼마나 공제되는지는 실제 구매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KRW)로 구매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

현재 복합결제 서비스는 델타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영국항공 등이 운영 중이다.

그동안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 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 구입이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

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대한항공측은 "고객이 언제든지 원할 때 항공 운임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새 마일리지 제도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내년 12월31일까지 이 같은 복합결제를 시범운영하고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새롭게 변경되는 방식은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해 마일리지 공제량을 다르게 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 미주 지역으로 분류돼 3만 5,000마일을 공제했던 하와이의 경우 3만 2,500마일로 줄어든다. 일본 후쿠오카도 종전 1만 5,000마일에서 1만마일로 줄어든다.

2022년 1월부터는 우수 회원 제도인 '모닝캄' 회원이 되기 위한 진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우수 회원 등급을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로 나누고 전년도 탑승 실적을 연 단위로 계산해 1년간 우수 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모닝캄 회원이 되기 위해선 탑승 마일리지 가 5만마일이나 국제선 탑승 횟수 40회 또는 대한항공 탑승 3만마일 이상인 경우를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실버 등급의 경우 1년간 '1만 마일 또는 10회'로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지며 보다 많은 고객들이 우수 회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우수 회원 혜택을 더욱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광수 기자

경남도 공공발주공사 임금체불 '제로화'

경남도가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 발주자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직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 6월 19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공 발주공사에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

비대, 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 행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 5월 10억 원 이상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도

급지킴이'를 도입했다.

그간 노력의 결실로 100% 실적을 달성해 정부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았다. 특히 2015년 하도급지킴이 이용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33, http://www.gyeongnam.go.kr)'를 상시 운영해 체불사황을 직접 접수

임금,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지킴이' 시행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 등 처리시스템

하고,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는 등 도내 임금체불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삼희 경남도 행정국장은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및 지급 지연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대금 결제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최만석 기자

청정·환경·보화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

천혜의 산수와 자연경관이 당신을 반깁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청정한 땅을 간직한 봉화...
아름답고 수려한 산세와 맑고 깨끗한 계곡이
태고의 멋과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살아있는 관광지,
새로운 활력을 찾으러 봉화로 오세요!

GREEN ENERGY

봉화군

이천시, 24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준공식 개최

총 665억 사업비 투입, 건축연면적 30,644㎡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 확대 개원, 6월 완공

이천시는 이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이 완공됨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이천 시민과 유관기관 및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사업은, 2013년 국회에서 BTL사업 승인을 받아, 총 6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지면적 15,312㎡ 건축연면적 30,644㎡,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2016. 11월에 공사를 착공해 2019. 6월 완공되어 확대 개원하게 됐다.

이번 완공으로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재

활의학과, 안과 등을 신설해 총 16개과 약 330명이 근무하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 종합병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2년 신축된 이천병원은 현재까지 약 37년여 간 이전, 여주, 양평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으나, 그간 병원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해 진료에 불편을 겪어 왔다.

앞으로 이천 시민뿐만 아니라 이천병원을 찾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최첨단 의료장비와 우수 의료진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경



기 동남부권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지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재활병동 등 특성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남시현 기자

이천시, 4차 산업혁명 드론 한 발 더 가까이

산들드론스쿨, 아라건설 지원받아 미래직업 창출의 기회를 틈 마련

이천시는 최근 이천시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지역사회 드론 저변확대 및 드론축구 등 레포츠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드론시뮬레이션, 장애인드론축구훈련장 및 국가자격증 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드론축구훈련장 및 국가자격증반 개설은 산들드론스쿨, 아라건설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가능했다. 드론분야 재능 있는 인재양성을 통한 미래직업 창출의 기회를 틈을 만들고 새로운 진로 탐색의 시야를 넓혀주고자 이천시장애인정보화협회, 산들드론스쿨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드론 관리 및 국가자격증반 교육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4차 산업의 중심에 선

드론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참여자는 "지체장애의 몸으로 축구를 생각도 못했는데 드론을 직접 조정하고 드론을 이용해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라는 소감과 드론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려운 어르신들 농가에 무료 농약살포를 해야겠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다.

이천시장애인정보화협회는 앞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스포츠를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드론비행의 원리와 드론체험 및 VR/AR 체험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장애인들이 꿈을 키우고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남시현 기자

화성시, 지역안전지수 상위권

화성시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3개 분야에서 등급 상승되어 개선정도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각 분야별 안전도를 지자체별로 1~5등급으로 산출한 것이다.

민선 7기 시민안전은 핵심가치로 꼽히는 시는 '화성형 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야간도보순찰대·우·동·빠 도입 시민안전체험교실 전국 최초 정신질환자 24시간 밀착 돌봄 응급위기대응시스템 질병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온 점을 인정받았다.

화성/김용범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농가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외국인 고용 시 갈등해결에 대한 교육 새로운 버섯을 이용 요리 시식회 마련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도내 버섯생산농가 60여명이 참석한 경기도버섯연구회 연말총회를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 한해 농가들의 과잉 생산 버섯에 대한 돌파구로 효율적인 국내 유통 및 해외수출을 위한 『버섯 수출 활성화 전략』에 관한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규격품 품질관리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버섯수출 통합조직인 K-MUSH

의 2020년도 해외시장 개척 및 사업 추진방향 발표와 함께 경기도 버섯의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또한 버섯재배농가의 『외국인 고용 시 예로 및 갈등 해결』이라는 주제로 외국인 고용에 있어 많은 궁금증과 문제점을 토론했으며, 경기도 여주에 "한국버섯배지원료센터"가 완공되어 농가의 배지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 희소식도 함께 전했다.

마지막으로 버섯연구회에서 새롭게 육성한 잎새버섯과 백령버섯을 이용한 죽, 장조림, 밀푼유 등 가정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시식회 자리도 마련돼 새롭게 육성한 버섯의 요리방법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버섯연구회 이영욱 회장은 "이번 교육이 경기도 버섯이 나아가는 방향 제시와 함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구현 버섯연구소장은 "현재 버섯 생산 시 인건비의 과도한 비증과 배지가격 상승, 과잉생산에 따른 버섯 가격하락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좀 더 많은 해외버섯시장이 개척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덕양구, 직원 및 시민 아이디어 건의함 설치



고양시 덕양구는 생활SOC 개선 및 균형발전 등 직원과 시민들로부터 시정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수받기 위한 건의함을 최근 덕양구청사 내에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느 때든 시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무기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제작한 아이디어 건의함은 덕양구청 청사 1층 입구 청사 내 1층 엘리베이터 앞 2층 대회의실 입구 등 시민 방문이 잦은 장소 3곳에 설치했다.

아이디어 주제는 행정, 복지, 일

자리, 복지, 문화, 체육, 시민안전, 환경, 균형발전, 교육 등 고양시정 전반에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상관없으며 아이디어 제안 뿐 아니라 평상시 고양시에 하고 싶은 말을 양식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해도 무방하다.

윤양순 덕양구청장은 "아이디어 건의함을 설치한 이유는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을 손수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실질적인 시민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특목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과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김영근 기자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함께 '행복산타' 개최

신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60여 명 참여, 영화와 외식 즐겨

오산시 신장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관내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산타' 행사를 개최했다.

신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복지 특화사업 '행복산타'는 관내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영화를 관람하

고 저녁 외식을 하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 이용 아동과 인솔자 및 신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인기영화 '겨울왕국 2'를 함께 감상하고 간식꾸러미 선물을 제공하는 등 아이들의 취향을 반영한 행사 진행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물했다.

오산/이승배 기자

연천군, 연말 보훈가족 위안 행사 개최

호국영령들 추모 취지로 마련 모범 보훈회원 6명 표창 진행

연천군은 최근 전국을 제일부페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보훈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 기해년 연말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보훈가족 위안행사는 김광철 군수, 임재석 군의회의장, 유상호 도의회의원, 김장훈 경기북부 보훈지청장, 8개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사회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행사를 거행했다.

보훈가족 위안행사는 보훈8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초청해 그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모범 보훈회원 6명에 대한 표창 등도 진행됐다.

김광철 군수는 축사에서 "오늘 이

행사가 보훈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 받는 시간이길 바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들과 보훈가족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라는 높은 자긍심으로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견뎌 온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장기현 보훈단체 협의회장은 대회사에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으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국가를 위해 초개같이 버리며 나라를 지켜낸 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장훈 경기북부 보훈지청장은 축사에서 "이 행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재조명하고 계승해 자유의 소중함을 가슴깊이 되새겨 호국보훈으로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김영근 기자

양주시, 농산업 경영혁신사례경진대회 수상



'양주골 애호박팀' 결성 경영혁신 나서농업인들간 노하우 공유키로

양주시는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농산업 경영혁신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주최로 현장 중심의 농산업 경영혁신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0개 광역시·도에서 1차 서면 선발, 2차 공개발표 심사로 평가가 이뤄졌다.

대회에 양주시는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주원농장 신재혁 대표와 시농업기술센터 담당지도사가 '양주골 애호박으로 부농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양주골 애호박팀'을 결성, 경영혁신과 현장 경험 공유과정 등 성공

사례를 발표했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신재혁 대표는 5년 전 귀농해 애호박 재배 기술을 365일 농가경영기록장에 작성,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인 컨설팅, 은현면 애호박 공선회에서 공동선별 작업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정석순 과장은 "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준 양주골 애호박팀에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작목에 경영혁신사례를 발굴해 농업인들간 현장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꾸준히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파주 장단콩 미생물 공급시 수량 크게 향상

영양과 맛이 좋은 콩 생산 연구 박사 실증시험으로 농업인 소득향상 기여

파주시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유용 미생물이 콩 생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생물 시험연구 실증시험을 실시해 농업인 소득향상 기여를 위해 실증시험을 진행했다.

실증시험 방법은 농업용 광합성균과 유산균 등 유용미생물 4종을 배합 후 물에 희석해 토양관주 및 엽면살포로 월 4회 처리했다. 실증시험 결과 정식 후 한 달간은 미생물을 처리한 곳에서 생육이 느린 양상을 보였으나, 개화기 후부터 생육이 확연히 좋아져 결과적으로 수확량이 유용미생물을 처리한 시험구 콩이 처리가 안 된 대비구 콩보다 36% 수량이 증수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콩은 뿌리가 활착하기까지

미생물 사용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나 뿌리가 활착해 생육최성기 시기부터 뿌리생장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콩 재배에 있어 농업용 복합미생물 사용은 가뭄 등 올해처럼 기상이변이 심한 경우에도 비교적 잘 견디게 해 수확량 증가에 도움이 됐다. 이번에 살포한 미생물이 콩 꼬투리 비대기에 필요한 수분 공급의 역할도 겸하게 됐으며 생육단계별 적절한 수분량이 콩 수확량 증가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지연 파주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주무관은 "실증 시험결과를 토대로 장단콩 재배농가에 유용미생물을 적극 공급해 농업인의 소득향상은 물론 영양과 맛이 좋은 콩 생산을 위해 유용미생물 활용방안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더 좋은 미생물을 다양한 품목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매년 연차별로 새로운 품목 실증시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영근 기자

광명시, 광명역자이타워 기업지원센터 개소



기업 원스톱 서비스 지원 나서 현장 지원센터서 기업애로 해결

광명시는 11일 일직동 광명역자이타워에 '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광명역자이타워 '기업지원센터'는 광명역 자이타워 내 입주기업들의 공장등록, 일자리 연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및 세금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여 찾아가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광명시 새빛공영로 67에 위치한 광명역자이타워는 대지면적 약 2만㎡, 건축면적 약 9천㎡, 분양면적 약 12만㎡에 이르는 건물로, 공장 656호를 비롯하여 총 904호가

입주한다. 광명시는 2020년 입주예정인 엠클러스터, 2021년 GIDC, 2022년 소하동 지식타워 등의 지식산업센터에도 현장 내 근거리에서 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이타워에 입주한 한 기업인은 "시에서 관심을 갖고 현장에 지원센터를 설립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을 중심으로 환영하며, 광명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선에서 땀 흘리는 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미성 기자

이천시,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성황리 개최

공동체 발전방향 모색 등 다양한 의견제시 지역공동체의 거버넌스 구축 등 전략 추진

이천시는 최근 엄태준 시장과 흥현표 시의회의장, 마을공동체 활동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행복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린 행사는 한해 공동체들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참여 가운데 향후 공동체 활성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다양한 의견제시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2019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공동체 활동내용 발표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중간보고 시장과의 공동체 활성화 토크콘서트 작은 음악회 순으로 성과 공유와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먼저 올 한해 다양한 주제로 주민 공모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들을 대표해 활동성과를 발표한 이천청년 연합봉사단, 수림1차 마을원더, 청년공동체 행아웃 등 3개 공동체의 발표에

참석자들은 열띤 공감과 성원을 보내 줬다.

이천시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 받은 한국지역진흥재단 김하생 연구원은 '농촌과 도시를 잇는 새로운 상생협력 플랫폼 개발'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 특화사업 활성화, 지역공동체 인재육성, 공동체 사업 경쟁력 강화,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어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엄태준 시장은 '2020년 공동체 사업 방향'과 '청년 공동체 지원계획' 등 시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시에서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의 마무리는 청년 예술인들이 맡았다. 경쾌한 음악으로 행복한 마



을공동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한해의 활동성과를 격려하는 어울림의 시간에 이어 엄태준 시장이 직접 기타를 메고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함께 합창을 하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 됐다.

엄태준 시장은 "내년 이맘때쯤 열릴 활동 공유회에서는 더 많은 공동

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마음으로 한해의 성과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희망을 구체화하고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드리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남시현 기자

의정부시, 시청 앞 띠녹지 및 미니정원 추진

'The G&B City 프로젝트' 일환 120m구간 기존 인도 중앙 조성

의정부시는 지난 7월부터 민선7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The G&B Cit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청 앞 시민로 일대의 띠녹지 및 미니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의정부 시청에서 의정부역 방면 120m 구간에 기존의 인도 중앙에 위치한 철연수도를 활용해 가로수와 가로수를 연결하는 띠녹지를 조성하고 보행로 양쪽의 잔디광장의 일부에 다양한 조화류를 감상

할 수 있는 주제별 미니 정원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울해 안으로 화단 경계석과 통석 벤치 설치 및 홍가시 나무 등 관목류 식재 공사를 마치고 내년 봄에 알록달록 계절 꽃을 식재해 꽃향기 가득한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연출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청 앞 시민로는 잔디광장과 더불어 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 사랑받는 공간으로 띠녹지와 미니 정원 조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연천수레울아트홀 내년 상반기까지 새단장

음향시스템과 대공연장 객석등 발코니 보수 등 리모델링 공사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연천수레울아트홀이 새단장에 나섰다.

수레울아트홀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개보수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는 2020년 상반기에 약 8억원을 투자해 대공연장 조명, 음향시스템과 대공연장 객석등 및 천장 발코니 보수등 리모델링 공사

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미 올 하반기에 약 2억원을 투자해 공연장 외부 아티스트 시공과, CCTV 화질개선 공사, 소공연장 객석의자 교체 공사, 빔 프로젝트 공사가 완료됐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소공연장의 의자를 영화관 전용 의자로 교체해 그동안 장시간 영화관람 시 불편하였던 점을 해소했으며 앞으로도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수레울아트홀을 많이 찾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

연천/김영근 기자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하반기 교육 수료식 가져



여성비전센터 프로그램 전면 개편해 예술·교양 분야 평생학습원서 운영

광명시 여성비전센터는 최근 여성비전센터에서 2019 하반기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43기 수료식에는 교육생, 강사, 교육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 결과보고, 시상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20년 이상 여성 평생교육에 몸담아 오면서 여성비전센터 발전에 이바지한 정해란(일본

어, 이경선(클래식기타), 이수경(어르신 시낭송), 한한석(원예) 강사가 공로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 수강생과 강사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평생학습상과 평생교육자상 표창에는 원예 강좌를 수강하고 공방창업에 성공한 윤은주씨와 서양화 강좌를 운영하며 작품전시회,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 이남령 강사가 수상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축하 인사말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교육도 함께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며 "내

년 여성비전센터 교육 프로그램은 취·창업 위주로 운영하고, 예술·교양 분야는 평생학습원 및 권역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면 개편했다. 앞으로 3년 주기로 프로그램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년 상반기 정규프로그램은 오는 2월 10일 개강한다. 36개 과정 647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13일부터 여성비전센터 누리집(woman.gm.go.kr)에서 신청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여성비전센터 ☎ 02-2680-2881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김영선·박종철 기자

파주, 나의 기억 찾기 3기 수료식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9월 16일부터 3개월간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나의 기억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2일 교육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했다.

'나의 기억 찾기' 프로그램은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운동, 원예, 공예, 인지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접촉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의 부양 부담 및 스트레스 감소를 도모하고자 운영됐다.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기 위해 치매검진 확대, 예방교육 운영강화,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사업, 치매환자쉼터 운영, 치매치료를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치매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한 어르신은 "나의 기억 찾기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졌고 치매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떨쳤다"며 "새로운 것을 배우으로써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벌써 끝나 아쉽고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순덕 파주시보건소장은 "치매 프로그램을 통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 또는 완화하고 대상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영근 기자

고양시, 2019년도 내부청렴도 종합청렴도 3등급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전국 지자체 평균점수 보다 높아

고양시는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평균점수 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평가됐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각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청렴도를 5등급으로 나누어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다.

종합청렴도는 업무처리 투명성과 금품, 향응제공 등 부패 직·간접 경험 및 인식 등에 대한 외부청렴도 설문조사와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을 조사하는 내부청렴도로 평가하는데 고양시는 각각 3등급 평가

를 받았다.

특히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최근 4년간 평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또한, 인사업무 부문에서는 2017년 5등급 평가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내부 청렴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내 28개 시 중에서 6위에 해당하는 평가이다.

시 관계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10대 청렴 행동수칙 제정, 청렴연극 공연, 관내 기업대표와의 청렴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취약부문을 분석하고 개선해나감에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의 청렴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영근 기자

횡단보도 안전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

꼭 기억하세요!

서다 신호를 기다릴 땐 **한발 뒤로 물러섭니다**

보다 신호가 바뀌면 **좌우를 살펴봅니다**

걷다 횡단보도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건넌다**

안전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 캠페인

도로교통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영덕 삼사해상공원내 호텔&리조트 건립된다

최대 규모의 5성급 320객실, 125명 상시 일자리 창출 랜드마크 조성 및 가족힐링·경험 등 관광객 유치 기대

경북도는 영덕군청에서 영덕군, (현)현건설과 총1,270억 원 규모의 '영덕 삼사해상공원내 호텔&리조트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호텔&리조트는 2022년까지 부지 21,959㎡에 지하2층, 지상10층 일반동과 지상4층 테라스동에 객실 320실과 수영장, 컨벤션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추게 되며, 현전건설에서 시행하고 한화건설에서 책임 준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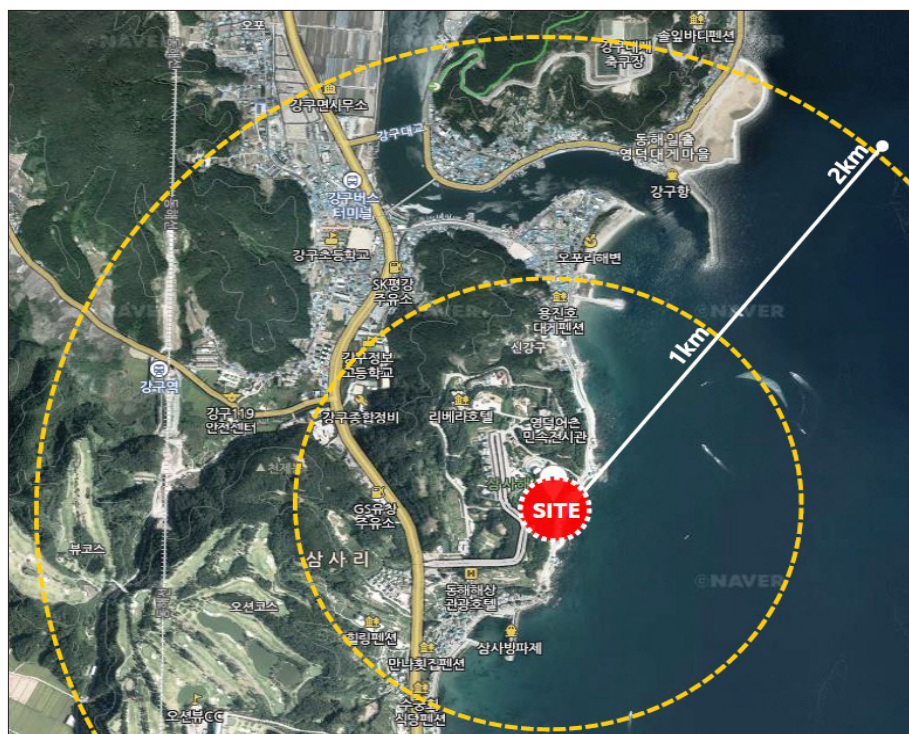
테라스 육조를 갖춘 바다조망 가족형 객실과 힐링을 위한 야외 인피니티 풀, 실내 해수 사우나, 뷰티바사지, 골프연습장, 루프탑 바, 파티휴게공간 및 지역 특산품 전시장을 갖춘 영덕 최대 규모의 5성급 호텔&리조트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텔&리조트는 영덕IC에서 자동차로 8분 거리에 있으며 영덕 오션비치

CC, 영덕대계 강구시장, 해상테마랜드가 인접해 있으며, 매년 해맞이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로 사시사철 관광객으로 붐비는 삼사해상공원 내에 위치하여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번 투자로 125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겨나고 호텔 운영에 필요한 자재를 지역 상권을 통해 공급받게 되며, 호텔 건립공사에도 지역 업체가 참여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덕은 동해바다 경관이 우수하고, 해맞이공원·블루로드·문화관광부 1위 축제인 영덕대계 축제 등 유행형의 관광자원이 풍부해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대인의 관광니즈에 맞는 숙박시설이 부족했다"며 "호텔&리조트와 같은 고품격 관광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이로 인한 관광객 증가도 늘어나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와 영덕군은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앞으로 도 기업을 위한 행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숙박 및 체험관광 시설 등 관광레저서비스산업을 적극 유치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공모사업 전국 최다 선정

전국 15개소 중 경북도 4개소 선정 농산물 조직화규모화로 경쟁력 강화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0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43억 원(총사업비 1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서면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전국 15개소(경북 4, 전북 4, 경남 2, 충북 2, 충남 1, 전남 1, 제주 1)를 선정했다.

이중 경북은 상주 사벌농협(52억 원), 경산 경산농협(13억 원), 자인농협(6억 원), 영덕 대구경북농협연합영덕사업장(41억 원) 4개소가 선정됐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사업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여 유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선별장·저온저장고·포장라인 등 농산물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유통효율화를 위해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3개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결과 지난해 경북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취급물량은 422천톤, 취급금액은 1조 425억 원으로 도내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2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유통센터(APC)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2022년까지 도내 원예농산

물 생산액 대비 30%를 취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중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수입시장 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의 성장, 도매시장 기능의 변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산지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봉화, 치매극복관리 최우수기관 수상

봉화군은 최근 경북도가 주관한 2019년 치매극복관리사업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봉화군은 치매사업 중 치매홍보의 다양화 및 가가호호 방문하여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사례관리와, 치매서포터즈의 활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치매환자쉼터의 다양한 눈높이 서비스 및 안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수상하게 됐다.

봉화군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2월 20일에 개소하여 치매사업에 대한 여러 기관과 MOU체결, 치매서포터즈양성, 치매선도학교로 인프라인구축에 힘썼으며 조기검진, 인지강화프로그램, 우리마을예쁜치매쉼터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함께 봉성면에 치매보듬마을을 선정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였고, 작은 가을 음악회 등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사각지대가 없는 봉화군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치매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이며, 치매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내년에 치매걱정 없는 봉화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봉화/정승초 기자

경주, 경북 식량적정생산 시책평가 우수기관 수상



쌀 적정생산 및 타작물 재배 적극 유도 농가 소득 안정 기여... 2년 연속 선정

경주시가 경북도 2019년 식량적정생산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식량생산 시책평가는 쌀 안정생산 대책 등 4개 부분 8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번 식량생산 시책평가는 안정적인 쌀 생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 대책추진 노력을 중점 평가한 것으로 식량생산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업무효율 증대와 정책 수요자인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쌀 안정생산 대책 등 4개 부분 8개 항목을 심사하는 것으로 최종 우수상을 수상

하게 됐다.

벼 재배면적 12,027ha로 도내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주시는 쌀 적정생산을 통해 쌀 시장 수급 및 안정을 도모하고, 벼짚환원, 논 타작물 확대지원 사업 등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벼 대신 타작물(벼 이외 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해 안정적인 쌀 생산과 함께 농가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도 농업 현장의 변화에 대응해 농업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내 최고의 농업도시 위상에 걸맞은 부자농촌, 희망농촌,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정승초 기자

울진군 '2020년 바다의 날' 개최지 최종 선정

국립해양과학관 개관식과 동시 열려 해양레포츠 메카로서 자리매김 계기

경북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0년 '제25회 바다의 날' 전국행사 기념식 개최 장소로 울진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5월 31일 '바다의 날'은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진취적인 해양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려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이번 개최지 선정은 해양수산부에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현장실사단의 현장실사와 개최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울진군'이 최종 선정됐다.

울진은 후포 마리나 항만이 내년에 준공되어 그동안 해양레포츠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고 환동해 해양과학 교육의 거점이 될 국립해양과학관이 올해 말에 완공되어 내년 바다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개최에 따라 행사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바다의 날 기념식은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서 주로 행사가 개최되어 군 단위 지역 기초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제25회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의

울진 개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해양관련 기반 및 의식이 밀집되는 경우, 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대규모 국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모범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경북도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울진군, 해양수산부와 T/F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행사계획을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바다의 날 기념식과 함께 해양산업 관련 세미나, 바다사진전, 뮤직페스티벌 등 학술·문화행사와 요트체험, 바다낚시대회 등 체험행사, 바다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와 연계하여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울진지역에 대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지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내년 바다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행사를 통한 관광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경북도, '울릉도·독도 식물도감' 영문판 발간

김태원 교사 14년간 직접 기록 '독도, 한국 땅' 메신저가 될 터

경북도는 울릉도와 독도에 서식하는 472종의 식물을 사진과 함께 식생을 기록한 식물도감 'The Plants of Ulleungdo and Dokdo' 교사가 발간한 '울릉도·독도 식물도감'(2018.11, 자연과생태)의 영문판이다.

김 교사가 2005년부터 14년간 60여회 울릉도·독도를 직접 찾아가 탐사하고 기록한 식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양섬이다. 애초에 대륙의 일부였다가 대륙에서 떨어져 나간 섬이 아니라 화산활동으로 볼썽 솟아올랐다는 뜻이다. 그러니 두 섬에 자리 잡은 여러 식물은 기후와 토양 여건에 맞추어 생김새와 습성을 바꿨다. 그 결과 울릉도와 독도에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한 특산식물이 많다.

영문판은 38종의 울릉도·독도 특산식물을 중점 소개했다. 이 중에

독도에 서식하는 특산식물은 섬초롱꽃, 섬괴불나무, 섬기린초 등 3종이다.

섬초롱꽃의 학명은 '캄파누라 다케시마나(Campanula takesimana)'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의 연구 활동의 산물로, 우리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와 보존활동 등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김 교사는 "울릉도·독도 식물탐사 14년의 결실로 작년에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어, 이번엔 경북도를 통해 영문판까지 출판하게 되어 정말 감개무량하다"며 "이 책을 통해 계절마다 피어나는 독도의 들꽃이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남일 경북도 환경해지여부분장은 "울릉도·독도의 생태학적 조사·연구를 축적하고 기록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며 "경북도는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다양한 울릉도·독도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식물도감 영문판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경주시, 시민이 감동하는 소통과 섬김행정 실천



성과과제 평가, 직무능력 향상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경주시는 공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근 '2019년도 직무성과 과제 최종평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직무성과 과제 최종평가는 올해 초 국·소·본부장, 과장 및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시장, 부시장과 직무성과과제를 체결한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다.

경주시는 올해 초 시장과 국·소·본부장 10명이 42개의 과제를 부시장과 과·읍면동장 83명이 260개 과제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해 시상하고, 평가결과는 간부공무원인 국장 및 과·읍면동장의 다음연도 연봉정책에 반영한다.

경주/정승초 기자

최종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평가위원회의 면담심사와 함께 시행과정 적절성 및 달성도를 평가했으며, 평가 배점은 지표품질평가 35점, 실행평가 55점, 조정평가 10점을 기준으로 이날 최종평가에서는 직무성과 과제에 노력도, 환경대응성 및 기여도,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했다.

업무평가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직무성과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이 직접 실감할 수 있는 전략적 과제발굴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무성과 과제 최종점검을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일부 진행이 미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정승초 기자

경북도, 제1회 경북청년 대 난장판 성황리 개최

경북청년의 공감 화합 대전지 열려 공감토크 등 청년회합 한마당 잔치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각 분야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어울리며 흥겨운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청년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청년 중심의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 11월 구미 금오공과대학교 체육관에서 '제1회 경북청년 대 난장판'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CEO협회, 청년상인회, 청년사회적경제인, 청년농부, 대학생 단체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다.

먼저 경북도 임대성 청년특별보좌관의 인사를 시작으로 각 단체별 화합을 위한 청년난장 운동회, 구미 청년 버스킹팀의 축하 공연과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하는 청년 공감 토크가 펼쳐졌다.

또 이날 행사는 기존의 토크콘서트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이철우 도지사가 '해피댄스', '청년과 공감하는 이십전십 퀴즈', '도지사와 이겨라' 등 다양한 코너에 참가해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며 소통했다. 이어서 도지사에게 고민, 청년정책 등 각 단계별 의견을 담은 봉투전달식과 함께 현장 즉문즉답 시간을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소통하는 모습을 보니, 경북의 미래가 참 밝고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20년에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청년이 살기 좋은 경북, 청년이 찾아오는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부산시, 낙후된 어촌어항 통합개발 어촌재생사업 속도 낸다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정부 공모 선정, 국비 224억 확보 낙후된 어촌공간 새롭게 디자인해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

부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결과, 오늘(12일) 최종 4곳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근 발표한 내년도 부산시 국비 확보 금액 7조 755억 원에서 224억(3년간)이 추가 확보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이끌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가기 쉬운 어촌, 찾고 싶은 어촌, 활력 넘치는 어촌'을 지향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300여 개 어촌·어항을 공모로 선정하여 약 3조 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 도시와 패총이 공존하는 동삼동 하리항(영도구), △ 길은 따라 흐르는 지역의 희망, 청사대길(해운대구), △ 하단항 관광형 어항개발사업(사하구), △ 함께하는 바다, 다시 뛰는 가

△ 대항바다학교(강서구)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국비 224억 원 등 모두 383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어촌기반시설인 방파제 보강, 물양장 신설 등을 정비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울림 해양친수공간, 바다학교 조성, 수산물 직매장 건립, 해안 산책로, 어구장고 등을 조성하여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어촌·어항개발 전문가 초청 상담회 및 부산시, 구·군, 지역협의체, 마을주민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개최, 지역특성이 반영된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2020년 공모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해당 구·군과의 협업을 통해 해수부 서면(발표)평가, 현장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전년 대비 4배의 성과를 이루었다.

부산시는 2019년 선정된 기



장군 통합 어촌뉴딜 300사업(2019~2021, 78억 원)을 통해 낙후된 물양장, 방파제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했다. 최근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어항의 유휴시설 방치 등으로 황폐해지고 있는 어촌공간을 이차림 재창출해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0년에 선정

된 어촌뉴딜300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관내 여항 및 배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 신청사업을 발굴, 2021년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더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어촌뉴딜 300사업이 부산의 낙후된 어촌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활력이 넘치는 어촌·어항으로 탈바꿈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최만식 기자

김해시, 부르면 달려가는 수요응답형버스 도입

한림면 운행 도시형버스 1번 개통식 노약자들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 기대

김해시가 콜방식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첫 도입한다. 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한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시형버스 1번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번 도시형버스는 개통식 이후 오후 1시부터 운행을 개시하며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운 한림면 내 5개 마을과 한림면행정복지센터를 연결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며 운행시간대는 기존 버스가 그대로 운행한다.

12인승 승합차 1대가 노선과 운

행시간 고정형으로 1일 5회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휴대폰 예약으로 이용하는 수요응답형으로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교통카드만 사용 가능하고 시내버스 56번, 57번, 58-1번으로 무료 환승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도시형버스는 최대한 도어 두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버스정류장 기준이 아니라 마을별로 최대한 운행이 가능한 지점까지 운행하므로 노약자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번 도시형버스 운영을 지켜본 뒤 다른 교통수단까지도 운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해/최만식 기자

부산시 중국 관광세일즈 효과, 유커가 돌아온다



개별특수목적 관광객 지속적 유치 다양한 관광 홍보마케팅 활동 전개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최근 김해국제공항에서 중국 태평양보험협업단의 제1차 부산방문 단체관광객 40여 명을 대상으로 부산 입국 환대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인센티브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는 사드 배치 이후 경색된 중국 관광시장에서 지난 11월 오거돈 시장과 위수강 중국 문화체육부 부장 접견에서 약속받은 '중국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력' 및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태평양보험협업단의 요청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한 성과다. 이들은 3박 4일 동안 부산을 방문해 태종대, 감천문화마을, 해동용궁사 등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포상관광'을 즐겼다.

그동안 부산시는 중국 최대 동영상사이트(아이치이) 영상광고 흥

보, 온라인 대표 여행사 씨트립 연계 「복(福)이 가득한 부산-釜山有福」 홍보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최근 이국적 풍경·독특한 문화 등 해외 촬영을 선호하는 중국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활영지로서의 부산 매력 발산 '위파이의 도시-부산' 컨셉 중국 내 유명인 초청 화보·스냅 촬영 여행 체험 및 홍보, 중국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운영, 뉴미디어 활용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홍보마케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말 현재 부산 방문 중국 관광객은 310,0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9%나 증가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의 방한 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유람형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산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부산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최만식 기자

김경수 도지사 "메가시티 플랫폼으로 수도권 공화국 극복"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는 지방 집중화 "교육혁신 통한 지역인재 양성" 역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으로 수도권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제1회 미디어포럼>에서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서기 위한 지방 집중화 전략,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 상반기부터 간부회의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구상을 밝힌 김 지사가 같은 주제로 대중강연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수도권 중력에 맞서는 메가시티 구상>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 지사는 120조 원의 투자와 2만3,000여 명의 고용이 예정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미시의 막대한 지원 제안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인력을 뽑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수도권인 용인시로 결정된 사례를 먼저 소개했다. 사람과 돈이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른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자 메가시티 전략을 고민하게 된 계기인 것이다.

지난 20년간 지방에 사는 20대 132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했으며 수도권 인구비중이 50%에 달한다. 이는 일본 34.5%, 프랑스 18.3%, 영국 36.4%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한 현실이다. 2019년 기준 100억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기업이 161개인데 그중 149개(92.5%)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김 지사는 해당 통계를 제시하며 "그동안 경남에서는 서부경남KTX 정부재정사업 확정과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프로젝트 선정, 대형항만 진해유지 등 대형 국책사업들을 유치했지만 지역의 청년들, 인재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인재를 만들어 내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위기의 시대가 온다"고 지적했다.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공간혁신을 통한 경제공동체와 교육혁신 방안인 지역혁신 플랫폼"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실제 민선7기 들어 경남은 부산, 울산과 적극 소통하며 '동남권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 플랫폼의 세부 실현 방안 중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에 방점을 두었다. "수도권에 대학이 40.4%가 몰려 있고 교육부 대학평가에서도 수도권 대학이 유리한 만큼 교육부에만 지역 대학혁신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며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우수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같은 구상을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제안했고 내년부터 진행되는 '지역혁신 플랫폼' 시범사업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김 지사는 대학 구조조정 외에도 신도시 조성 사업과 광역 교통 인프라 국비 지원 등 반복되는 수도권 중심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으로 우수인재 양성시스템, 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어지고, 수도권 집중 완화가 '또다른 수도권'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집중이 필요하다는 역설이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거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거제시는 최근 소노캄 거제에서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청년 일·잡자리 도움사업'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1차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과 10월 이후 신규 채용된 청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거제시는 청년들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근로기준법의 이해, 대한민국 뿌리산업에 대한 특강, 실내캘링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의사소통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교육에 참석한 청년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격려하며 내년에도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원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변광용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거제시를 든든히 받쳐 주고 있는 청년들 한 명 한 명과 모두 악수를 나누며 격려 인사를 전했다.

거제/최만식 기자



경북을 이어가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경북에서 당신이 이어나갈 여덟 가지 특별한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당신만의 이야기를 이어나 보세요.

경북을 잇다 **HiStory** 경북

산들길느린 선비 (대명전해)

가야의 재발견 (다스커버리 가야)

출발! (스토나라)

그네가 메뚜기에게 어귀바라보면 (산별길 선비야랑)

건국한 선비제현 (선비의 힐링)

이제까지 (김해1사)

2030 스토리야 (영서전해)

전주시, 치매예방교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도와



치매안심센터는 내년에는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이외에도 청소년 수련관·사회복지관·학교 등에 찾아가는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플러스 교육과 야호체협 프로그램을 실시해 청소년들이 치매를 바로알고 함께 극복하는 치매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 치매 인식개선사업, 치매환자 가족자조모임, 치매조기검진, 인지 저하자와 진단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조호 물품지원,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경숙 전주시 치매안심센터장은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교육으로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세분화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전주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란도란 두뇌톡톡교실 등 치매안심센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주/김승일 기자

60세 이상 어르신 '도란도란 두뇌톡톡' 운영 노년기 우울증, 스트레스 감소 신체기능 촉진

전주시가 운영하는 치매예방교실이 참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치매예방교실인 '도란

도란 두뇌톡톡'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총 90회의 프로그램에는 연인원 737명이 참여해 치매예방교육을 받았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감각활동과 실제 일상생활과

연관된 활동을 통해 노년기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신체기능 촉진으로 점점 퇴화되어 가는 뇌기능을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안면근육 자극하기와 은뭉 자극하기 등 뇌신경계조치매예방체조 지남력을 향상시키는 현실인식훈련 집중력, 기억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인지훈련 학습 수예와 공작 같은 소근육 활동 등이다.

보성 산타클로스, 여가다 모였네

보성군은 최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2019 보성군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의 1년 활동상을 공유하고 격려하며 자원봉사의 위상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진정한 산타클로스는 의미로 참석자 모두가 산타클로스 모자와 루돌프 머리카락을 착용해 행사장에는 즐거운 분위기가 가득했다.

이날 행사는 기타와 오카리나 연주 등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단체들의 활동을 담은 영상보고 및 자원봉사 유공자와 봉사 단체 15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특히 12개 읍면 여성자원봉사회들과 보성여자중학교 학생 25명이 틈틈이 함께 연습한 자원봉사 플래시몹을 시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김철우 군수와 공감토크' 시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군정에 대한 제안, 궁금한 점 등을 적어 노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비행기에 적힌 질문들을 즉석에서 답변함으로써 봉사자들과 따뜻한 소통의 장을 가졌다.

보성/이용만 기자

'독서의 즐거움 한가득' 장성군립중앙도서관 재개관

문화분야 생활 SOC 공모사업 선정
국비 4억 확보, 5개월 간 리모델링

장성군립중앙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16일 재개관한다.

앞서 장성군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분야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4억 원을 확보, 올해 7월부터 5개월 간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리모델링 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그간 사용빈도가 적었던 전시관을 어린이 전용 자료실인 '어린이 이야기숲'으로 변경한 점이다. 아이들의 동선을 고려해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조성한 어린이 이야기숲은 478㎡ 규모로 영아부터 유아, 초등학생,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꾸며졌다.

또 벌집 형태의 다각형 열람 공간도 마련되어 독서의 즐거움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밖에 수유를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며 동화구연실과 영화 상영 및 독서교육이 가능한 시스템도 갖췄다.

2층은 기존 자료실 복도의 벽을 허



물어 공간을 넓혔고 창가에는 책상과 소파를 배치해 야외공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원형계단을 통해 이어지는 3층 자료실에도 독서와 사색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장성군립중앙도서관은 재개관을 기념해 12월 21일 인형극 '곰도리와 크리스마스'와 22일 '샌드아트 동화 이야기'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의보드게임, 크리스마스 컵케이크 만들기, 그림책 빵집 등

6개 강좌와 새해맞이 복주머니 만들기, 미니어처 푸드트럭 꾸미기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재개관한 장성군립중앙도서관은 쾌적하고 여유로운 독서공간을 지녔으며 아이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며 "장성군민이 사랑하는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오홍근 기자

장흥군, 2019년 노인복지관 성과발표회 개최

어르신들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
안무·출연·의상 직접 꾸며 공연

장흥군은 최근 군노인복지관에서 올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발표회와 작품전시회가 열렸다고 15일 전했다.

본 행사는 올해 운영된 30개 프로그램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동영상 시청으로 시작했다.

이어 유공자 표창과 각종 프로그램에서 직접 배운 솜씨를 뽐내는 공연물 위주의 수강생 발표회가 진행됐다.

안무도 직접, 출연도 직접, 의상도 직접 꾸민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이 주인공인 무대였다.

농악반의 신명나는 풍물가락을 시작으로 실버 바리스타동호회의 핸드드립 커피 시음회, 그린테라피반의 디퓨저만들기, 소망나무 꾸미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또한 서예반과 수채화반, 지승공예, 한글서예로 쓴 가훈 등 지난 1년간 배움을 통해 얻은 성과물들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 성과발표회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장흥군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이 단순히 여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개발 및 사회참여를 위해 노인복지관을 찾고 있다.

내년에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 무대에 다시 서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종순 군수는 "한 해 동안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정길 기자

순천시, 동계 전지훈련의 메카로 각광 받아

쾌적한 체육시설 공공인프라 구축
스포츠와 관광 시너지효과 극대화

순천시가 지속적인 체육시설 공공인프라 구축으로 최적의 겨울철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순천시는 2019년 동·하계 전지훈련 3만 1,033명을 유치해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 우수시군으로 지난 9월 선정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전지훈련 최적지임을 보여줬고 부상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올림피키키트관 시설개선을 통해 더욱 쾌적한 전지훈련 인프라를 구축했다.

순천시가 전지훈련 최적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온화한 기후, 쾌적한 스포츠 인프라, 맛깔난 남도음식, 편리한 교통여건 등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와 관광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동계 시즌을 맞아 전지훈련지 홍보물과 동영상 제작해 전국 지자체 932개소에 배부·홍보하고 대한체육회 및 전국 유소년축구협회 등을 방문해 전지훈련 유치

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1월과 2월에는 축구, 야구, 검도, 유도 등 4개 종목에서 대회를 치를 예정되어 있어 약 5천여 명이 순천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 1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0 순천만국가정원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는 전국 유소년축구클럽 60개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순천시에서는 '다시 찾는 동계훈련장'으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전년도 훈련팀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전지훈련장 제공, 지역 농특산물 지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외에도 맞춤형 체력인증서비스와 관광지 할인혜택 등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최적의 훈련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0년에도 전국에서 동계훈련단이 순천시를 찾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며 "시에서는 전지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순천/김영만 기자

화순군, 관내 문화관광해설사 팸투어 실시

탐방지 해설사들 기법 벤치마킹
관광객들에게 전문적 해설 강화

화순군은 최근 관내 문화관광해설사 등 17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에서는 중남 공주시 마곡사, 부여군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등 백제의 주요 유적지를 탐방하며 관광마인드를 함양하고 화순군의 역사유적과의 연관성과 개별성 등을 이해하고 이와 더불어 탐방지 해설사들의 해설 기

법을 벤치마킹했다.

화순 해설사협회 회장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권 관광 명소를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군의 소중한 역사자원을 잘 알리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결심하는 데 자극이 됐으며 관광 해설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관내 관광지 홍보를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해설사들의 역량 강화와 관광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영만 기자

순천시 드림스타트 '드림러브 페스티벌' 개최

가족 협약기관 후원자 200여 명 참석
힘찬 모듬복과 수어, 동요공연 뽐내

순천시에서는 최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아동과 가족, 협약기관 및 후원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러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5일 전했다.

드림러브 페스티벌은 올 한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아동들이 배우고 익힌 재능을 발표하고 가족과 후원자가 함께하는 뜻깊은 송년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는 아동권리 및 드림스타트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은 연계기관 후원자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아동들은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힘찬 모듬복과 수어, 동요공연으로 한껏 뽐냈다.

특히 고사리 같이 예쁜 손동작과 입모양을 맞추어 하나가 되는 수어공연은 잔잔한 감동을 줬으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사랑하는 드림스타트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경품 이벤트 및 별문쇼와 매직쇼를 통해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을 펼쳤다.

드림스타트에 감사 편지를 낭독해 준 한 부모는 "한 해 동안,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순천/김영만 기자

여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5억원 지원
농지 소재지 읍면동 20일까지 신청

여수시가 이달 20일까지 '2019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총 5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헥타르(ha) 당 유기농은 94~122만 원, 무농약은 78~100만 원이며, 인증단계와 작물별로 차등 지원한다.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인증 받은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소득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수/박규규김성연 기자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수료

농촌정착 위한 실생활교육으로 구성
2년 동안 48세대 52명 교육생 배출

구례군은 최근 용방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김순호 군수를 비롯해 박노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교육생 가족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2기 수료생을 배출한 체류형센터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29세대 36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날 교육 과정을 완료한 35명에 대해 수료증이 수여됐다.

교육은 총 35회 133시간 운영됐으며 교육내용은 주로 각종 영농이론 및 실습, 선도농가 현장방문의 농업교육과 농지 및 빈집 정보, 집짓기

교육 등 농촌정착을 위한 실생활교육으로 구성됐다.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2017년 3월 개소해 2년 동안 48세대 52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그 중 29세대 46명이 구례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수료식을 마친 교육생 가운데 19세대 31명이 구례에 정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순호 군수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구례는 귀농귀촌인 유입으로 인구절벽을 극복해가고 있다"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구례에 정착하게 도와주는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용만 기자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2020년 전남도 대표축제 선정



세계 최대 상사화군락지 불갑사 23만여 명 다녀가 인도공주와 경운스님의 애뜻한 사랑 스토리텔링해

영광군은 군 대표축제인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2020년 전남도 대표축제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8년과 2019년에 이어서

3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이라는 쾌거이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세계 최대의 상사화군락지인 영광 불갑사 관광지 일원에서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23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상사화 설화인 인도공주와 경운스님의 애뜻한 사랑을 스토리텔링해 개막식 주제공연을 선보이며 축제의 개최의미를 부각함과 동시에 방문객들의 공감을 끌어내었다.

또한, 상사화 꽃길을 걸으며 연극, 게임, 프로포즈 등 커플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상사화 꽃길걷기' 킬러콘텐츠 업그레이드와 야간 EDM 공연, 조명시설 확대 등 야간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며 이외에도 각종 체험, 전시, 먹거리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열려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축제가 됐다.

특히 축제기간 중 찾아온 제17호 태풍 '타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대표축제에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축제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민·관이 하나되어 신속한 시설물 철거, 비상근무 돌입 등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없는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내년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영광 불갑사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야간프로그램 강화, 영광 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 및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수은 강형선생 재조명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문화·제품, 킬러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확대 등 보다 다채롭고 한층 발전된 축제로 거듭나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영만 기자

장흥 관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스트레스를 날려라"



장흥군 관산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1일 '중3, 고3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팜팡 파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중3, 고3 이었으며 남학생은 '경제교육' 여학생은 '메이크업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는 경영학 정영수 교수와 메이크업 서은라 원장이 수고했다. 강의 내용은 주인공이 되려면 꿈을 꾀야한다는 것이었다. 정영수 교수는 성공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운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스

스로 끊임없이 변화시켜 '행운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은라 원장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기 위해 중성피부과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 젤, 클렌징 워터 사용법을 배웠다. 장흥군 관계자는 "그동안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 어려움 견뎌내며 땀 흘린 중3, 고3 청소년들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모두 잊고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정길 기자

대박터진 보성군, 해양레저관광·어촌뉴딜 선정

블루투어 선두주자로 날개 달아
4계절 해양문화를 즐길 수 있어

보성군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어촌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62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은 최근 남해안 해양 관광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회천면 울포종합관광단지 일원에서 실시되며 3개년 간 48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어촌뉴딜 사업은 141억 원 규모로

벌교읍 장양항, 회천면 군학항 2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보성군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이끄는 블루투어 선두주자로 날개를 달았다. "계절에 구애 없이 4계절 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보성을 만들겠다"던 김철우 보성군수의 보성형 블루이코노미가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성군은 보성 해양 복합센터를 중심으로 해양 전문 인력 양성하고 울포종합관광단지를 섬·연안·어촌을 연계한 체류형 해양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내년부터 바로 시설설계에 들어가고 3년간 480억 원을 투입해 보성해양복합센터, 해수파도풀 리노베이션, 전망대, 해상카페, 해양 액티비티 시설 체험장, 씨사이드 비치데크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보성군수는 "울포종합관광단지가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다도해권역 지역거점이 될 수 있도록 큰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의 기계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6종 318대 농기계를 갖춰 임대하고 있다.

보성/이용만 기자

구례, 농업기계 임대사업분소개소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12일 장거리로 인한 농기계 임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용방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내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소 설치로 광의, 용방, 산동 등 구례 서북부 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사용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 구례군은 농가의 농기계 구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의 기계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6종 318대 농기계를 갖춰 임대하고 있다.

구례/이용만 기자

정현복 광양시장, 마지막 읍면동장 회의 개최

행정 우수 시책 공유 시간 가져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나서

광양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의 주재로 국·단·소장과 읍·면·동장 연석회의를 갖고 시가 안고 있는 현안과 읍·면·동 일선행정의 우수 시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시 실거주자 주소 갖기 운동 추진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한파에 따른 계량기 동파 예방 시정 성과 및 각종 시책 적극 홍보 건기할

성화 '걷기 자조마을' 확대 운영 2020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 안내 100원 택시 확대 운영 등 본청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실·과·소장이 시정 주요 당면사항을 시달하고 읍·면·동장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에 이어 시정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읍·면·동의 일선행정은 우리 시정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읍·면·동장부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고 일선행정에 반영해 나가려는 도전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양/김영만 기자



장성군 '16일부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1만,559건, 13억2,000만원 부과해
지난해 13억원보다 약 1.5% 증가

장성군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559건, 13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과한 13억 원보다 약 1.5% 증가했다. 2019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상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고지내역 확인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시

중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단, 타인 명의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부기간 동안 읍면의 징수독려활동을 지원하고 징수현황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장성/오홍근 기자

순천시, 재가 암환자 건강 나눔 힐링캠프 가져

'건강한 생활습관은 또 다른 항암치료다'
생활수칙에 대한 강의 대상자들 큰 호응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 에코촌에서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건강나눔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강나눔 힐링캠프는 광주·전남 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강사초빙해 '건강한 생활습관은 또 다른 항암치료다'를 주제로 암 경험자를 위한 식사관리법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순천시는 2019년 2월부터 건강주

치의 사업을 도입, 말기 암환자 및 장애인 등 42명을 대상으로 매일 가정을 방문해 통증관리, 투약, 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암으로 힘들게 투병하는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암종별 소그룹 자조모임을 확대 운영하고 건강·생활·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과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상담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해 암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김영만 기자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농어촌

KF 한국농어촌공사

생명산업의 뿌리, 농어촌용수 물길이 생명길입니다

국토의 생명물길, 농어촌용수
건강한 물순환을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국토의 물길을 관리하는 것은 인체의 혈관처럼 생명을 주관하는 가치있는 일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물려주는 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합니다.

장흥군, 심천마을에 '희망가꾸기 31호' 주택 탄생

지난 7월 화재로 주택 전소된 저소득 장애인 가정 화재복구비, 주택신축 매칭 사업비 지원 받아 신축



전남 장흥군은 최근 부산면 심천마을에서 희망가꾸기 31호 주택신축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희망가꾸기 31호 주택은 지난 7월 화재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어 오갈 곳이 없어 창고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가정을 위해 지어졌다. 장흥군 희망복지지원팀은 EBS 나눔0700에 방송모금을 요청하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화재복구비와 주택신축 매칭 그랜트 지원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아 17평의 주택신축을 시작했다. 신축을 위해 부산초 45회 동창회,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부산면자율방범대, 부산면 번영회에서 후원에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열린 북면의 행사 영상을 상영하고 식선행사로 관내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행사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1부에서 기념식이 진행되고 2부 행사에서는 '찾아가는 통일공감' 강연이 이어졌다. 아산초등학교가 후원한 불어빵 기계에서 나오는 불어빵을 나눠 먹으며 훈훈한 분위기는 이어졌다. 조주호 북면 사회단체협의회장은 "1998년부터 매년 북면 사회단체가 앞장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사를 하고 있다"며 "북면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형재 북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시는 지역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행사가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정길 기자**

화순 북면 기관·사회단체, 이웃돕기

전남 화순군은 최근 아산복지회관에서 북면 기관·사회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제22회 송년회 및 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북면 사회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최기천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열린 북면의 행사 영상을 상영하고 식선행사로 관내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행사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1부에서 기념식이 진행되고 2부 행사에서는 '찾아가는 통일공감' 강연이 이어졌다. 아산초등학교가 후원한 불어빵 기계에서 나오는 불어빵을 나눠 먹으며 훈훈한 분위기는 이어졌다. 조주호 북면 사회단체협의회장은 "1998년부터 매년 북면 사회단체가 앞장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사를 하고 있다"며 "북면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형재 북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시는 지역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행사가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영만 기자**

여주시, 조손가족 140세대에 밀반찬 지원

여성단체 회원 등 50여 명 참여해 조손가족 400명, 사설 5개소 전달

여주시는 최근 여주시청 주차장에서 '조손가족 사랑의 밀반찬 나눔행사'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밀반찬 세트 만들기와 배달로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부식업체에서 만든 소불고기, 장조림, 멸치볶음, 어묵볶음, 동그랑땡, 배추김치 등 밀반찬 10개를 200여 세트로 포장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밀반찬은 조손가족 140세대 400명과 여성복지시설 5개소에 전달됐다. 행사에 동참한 권

오봉 여주시장은 "우리 아이들과 보호자 분들이 밀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길 기원한다"면서 "바쁜 일정 중에도 행사에 참여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1일 자원봉사자로 나선 오00 씨(여 40)는 "밀반찬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면서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주변을 살펴볼 계획이다". **여수/이남출 기자**



(주)금복주, 봉화군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사랑의 열매 판매 수익금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전달

(주)금복주 대표이사가 어려운 이웃과 희망을 나누고자 최근 경북 봉화군청을 방문하여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주)금복주의 '참소주'에 '사랑의 열매'를 부착하고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탁한 것으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에 이어 두 번째로 전달되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김일환 (주)금복주 부사장은 "올 한해 어려움을 겪었을 이웃들이 희망을 품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항 봉화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해 준 (주)금복주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동모금회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잘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 **봉화/정승초 기자**

광주시 오포읍, 이웃돕기 행렬 '훈훈'

지엘어린이집(주)씨제이지온 성품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려는 이웃돕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엘어린이집 전향미 원장과 원아들은 최근 오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25만 원과 25만 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주)씨제이지온 김범택

대표는 지난 9일 지난해에 이어 즉석식품과 라면 등 현물을 기탁했다. 권용석 오포읍장은 "올해 오포읍에 45건의 성금과 성품 기탁이 이뤄졌으며 함께 금액이 5천만 원에 달한다"며 "이를 통해 오포읍 취약계층이 올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다"며 기탁해 주신 주민들과 단체에 감사사를 표했다. **광주/남시현 기자**

이천시 행복한 동행에 온정의 손길 이어져



전문건설협회-김점순씨 등 성금 기탁

경기 이천시 호반씨티덕평CC노동조합에서 150만 원, 이천시 전문건설협회에서 200만 원, 이천시민 김점순씨가 성금 1,000만 원을 이천시 '행복한 동행' 사업에 기탁해 왔다. 호반씨티덕평CC는 호반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골프장내 50여 명의 노조 조합원들이 2년 가까이 십시일반 모아온 저금통 동정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해 왔다. 1986년 개장한 호반씨티는 경기남부권 골프장 중 접근성이 용이하고 각종 편의시설들의 사용이 쾌적하고 편리해 각종 동호회 및 단체 등에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골프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달받은 상품권은 읍면동을 통해 저소득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천시 전문건설협회는 이천시 관내 토목, 건설, 조경 등 종합건설에 종사하는 회원 4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천군청 당시에 초대 부녀아동계장을 역임한 김점순씨는 재산을 정리해 본인이 기거할 조그만 공간을 마련 후 남은 금액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오고 있으며 금번 기탁식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김점순씨는 5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훌륭히 길러 모두 출가시켰으며 자녀를 양육시 국가를 통해 받은 혜택을 이제 돌려주는 것이며 겸손의 말을 이어갔다. **이천/남시현 기자**

전주시, 엄마손맛집 홀로어르신에게 식사 제공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서 120명 초청 소외된 어르신 위한 봉사 꾸준히 펼쳐

전북 전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는 최근 효자동 엄마손맛집에서 겨울철 홀로 계신 독거노인 120명을 초청해 무료식사를 제공했다. 이날 무료급식은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영양공급과 따뜻한 지역주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동참한 엄마손맛집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라면 등 생필품도 전달됐다. **전주/김승일 기자**

이에 앞서 효자동 엄마손맛집은 지난 5월에도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 계신 어르신 120명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고 매월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소외된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때에 맛있는 음식도 주고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즐거운 시간도 만들어주니 내가 한층 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주/김승일 기자**

지역소식

포천 '클라우드 펀딩 수익금 기부'



경기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가 최근 포천시 이웃돕기 생방송에서 '6차산업 사과프로젝트 한입 먹힌 사과' 클라우드 펀딩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6차산업 사과프로젝트 한입 먹힌 사과'는 학생들이 직접 사과를 재배하고 제품명과 로고 및 포장까지 전 과정을 모두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래밍이다. 아이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한입 먹힌 사과'는 지난 9월 10일부터 22일까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판매돼 총 606,370원의 수익을 올리며 목표액을 달성했다. 사과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은 수익금 전액을 포천시 이웃돕기 생방송을 통해 기부했다. 한 학생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했던 만큼 수익이 많이 올릴 수 있었고 이를 다시 기부하며 포천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포천/김승곤 기자**

고양시 삼송초, 바자회수익금 기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초등학교 학생자치회에서 최근 삼송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48만95.90 원과 무릎담요 40개를 기탁했다. 성금은 삼송초등학교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 수익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는 학생들이 직접 결정했다. 한수연 교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물건을 내놓아 행사에 참여해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뜻깊은 행사에 동참해주신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방상필 삼송동장은 "성금을 기탁해 준 삼송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한푼 두푼 모아 기부를 실천한 따뜻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까지 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고양/김영근 기자**

광주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개최'

경기 광주시는 최근 시청 2층 로비에서 '도자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 주최로 열린 이번 바자회는 불우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09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도자 바자회는 13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조합원들의 우수한 전통도자 작품 20여점과 생활도자기 및 소품 100여점이 기존 가격 대비 50%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기탁될 예정이다. 정영민 도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수한 도자기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남시현 기자**

안성, 바르게살기, 이웃과 함께



경기 안성시 서운면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최근 서운면사무소에서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 위한 물품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탁 물품들은 지난 6월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해 심은 메주콩을 수확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마련했으며 쌀, 김치, 밀반찬 등 어려운 이웃에 30여명에게 전달했다. 김학성 위원장은 "올해 회원들과 열심히 심은 콩 농사의 결실을 복지혜택을 못 받는 주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진환 서운면장은 "올여름 관내 어르신들이 모기, 벌레 물리지 않도록 모기향 등 행복한 여름나기 물품 기탁과 함께, 겨울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김치 등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바르게살기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안성/이동원 기자**

(주)다솔, 장흥군에 백미 300포 기탁

(주)다솔에서 최근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900만 원 상당의 백미 10kg 300포를 전남 장흥군에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품 전달은 추운 겨울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해주고자 한 것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11개소에 전달됐다. (주)다솔은 장흥바이오토탄 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이다. 2012년 장흥군 인제육성장학급

5천만 원 기탁, 2017년 쌀 600포, 2018년 쌀 300포, 삼계탕 1,678팩 기탁 등 꾸준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손길을 전하고 있다. 정준소 장흥군수는 "관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온정을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정길 기자**

광명, '사랑의 라면 100박스'



경기 광명시 소하1동 통장협의회는 연말을 맞아 최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 사랑의 라면 나눔은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통장들이 적극 나서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봉광군 소하1동 통장협의회장은 "나눔은 만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더 행복해진다.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의 미소를 볼 때 보람도 느끼고

김유근 회장 취임기념 백미 기탁

경남 통영청실회는 최근 통영시를 방문해 52대 김유근회장 취임기념 백미 800kg을 이웃돕기 성품으로 기탁했다. 통영청실회는 순수한 사회봉사단체로서 그동안 자연보호와 농어촌 일손돕기, 장학사업, 경로위안잔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무료급식 봉사활동, 의료기관과의 합동봉사활동 등을 펼쳐왔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 돕기 활동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통영청실회 김유근 회장은 "52대 통영청실회 회장 취임을 계기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영/최민석 기자**

부산시, 박물관에서 즐기는 따뜻한 연말 클래식 공연

북천박물관, 토요일문화프로그램 '박물관 겨울 음악회' 전문 연주자들이 펼치는 따뜻한 연말 클래식 연주회

부산시 북천박물관은 연말을 맞이하여 14일 토요일 북천박물관 1층 로비에 마련된 특별공간에서 토요일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박물관 겨울 음악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2017년에 결성되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더 클래식 바움'에서 바하의 '지(G)선상의 아리아', 멘델스존의 '무연가' 등을 첼로·피아노·기타·플루트의 연주로 7곡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2003년 창단된 가장 지역 청소년 연주 단체인 <기장 청소년 리코더 합주단>이 출연하여 우리에게 친숙한 '맘마미아 메들리', '상어가족', '디 엔에이(DNA)' 등 10곡을 들려준다.

3부에서는 다양한 클래식 연주와 음악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이노스 앙상블>이 아돌프 아담의 '오 거룩한 밤(Oh Holy Night)',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등 7곡을 6현즈의 독특한 피아노 연주로 테너·소프라노의 목소리로 선보일 예정이다.



북천박물관 관계자는 "정통 클래식 앙상블과 청소년 리코더 합주단이 펼치는 귀에 익숙한 클래식과 팝 음악 등 연주를 통해 학생·연인·가족들이 함께 연말 박물관에서 가슴 따뜻한 낭만음악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최만식 기자

오산 꿈두레도서관 '수업료를 돌려주세요'

다양한 시민이 참여 연극 동아리 '1관 1단' 연극공연 성황리 마쳐

경기 오산시 꿈두레도서관은 최근 '1관 1단' 사업 일환으로 연극 동아리 별빛극단의 연극 '수업료를 돌려주세요'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1관 1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꿈두레도서관을 동지로 구성된 '별빛극단'은 퇴직 교원, 지역 학부모, 연극 연출진, 교육 사업 종사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한 연극 동아리이다.

극본 '약기 파는 흑부리'를 제작하고 연극인 협회 오산 지부장인 이화정 연출자와 셰익스피어 작 '한여름 밤의 꿈', 테너시 윌리엄스 작 '유리 동물원' 등의 작품을 통해

연기의 기초를 다졌다. 별빛극단은 지속적 극단의 운영을 위해 민들레 극단의 '송인현' 대표를 모시고 극단의 운영에 관한 방법과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질 정도로 극단의 창단과 운영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극단 관계자는 "별빛극단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도시 오산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좋은 연극,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오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도서관장은 "앞으로도 도서관에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연극, 뮤지컬 등의 예술동아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오산/남시현 기자

여주박물관 오는 18일부터 초대기획전 'Flow' 개최

경기 여주시 여주박물관에서는 오는 18일부터 '2019년 여주박물관 초대기획전 - Flow' 전시를 개최한다. 'Flow'는 '흐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번 'Flow展'은 그 흐름에 관한 의미와 물음, 그리고 자아성찰에 관한 이야기들을 두 명의 사진작가, 두 명의 회화작가 총 네 명의 작가들이 바라본 시각으로 풀어보고 함께 작품으로 소통하는 전시이다.

작가 염유진은 같은 장소의 모습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일상의 모습을 필름에 담는다. 작가는 공간과 시간과의 관계성을 고찰하는 동시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네 삶, 그리고 작가 삶의 무게에 대한 내용을 프레임에 담고 있다. 작가 이호영은 자연현상의 모습을 생성과 소멸의 연속과 반복 작용으로 보고 시초, 원인, 본질을 의미

하는 고대 그리스어 아르케와 연결해 시각프레임을 통해 고찰한다. 작가 유기중은 언뜻 보면 흑백 사진과도 같은 분위기의 풍경을 화선지에 먹으로 표현한다. 작가는 한국의 산과 강의 풍경을 문인화의 선비적 정신성을 목격한 느낌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그 간결한 점, 선, 면의 느낌과 표현은 현대적 회화의 감각과도 다르지 않다. 작가 김과리는 '환희'라

네 명의 작가들이 바라본 시각으로 풀어보고 함께 작품으로 소통 마련

는 주제로 사람의 표정에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각기 상황마다 다른, 환희에 찬 표정과 색이 어울리면서 묘한 감정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여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Flow展을 통해 자연과 시간, 공간, 감정의 흐름에 대해 생각해보고 작품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주/남시현 기자

수원시 '통장, '꿀값'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행정기관과 주민을 이어주는 오작교' 통장들에게 지역 리더로서 역할 강조

경기 수원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강당에서 통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통장 역량 강화 교육'을 열고 통장들에게 지역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꿀값을 다 하는 사람이 되자'를 주제로 강연한 한영석 경총교육연구소장은 "통장은 다른 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불씨이자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선장이다. 또한 역할을 하는 지역 리더"라고 전했다.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설명하며 "꿀값을 다 하는 리더가 되려면 내가 먼저 행동하고 먼저 웃고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역량 강화 교육은 통장 활동 유공자 표창, 한영석 감사의 강연, 조인상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김진표·김영진 의원의 인사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의 '남북교류 협력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통장협의회 김성수 부회장, 유지현 사무국장, 허용문 감사, 조복덕·양영미 임원이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조명자 수원시의회의 의장은 "통장님들이 지역 리더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오산문화예술회관 '음악사의 하이라이트'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서 펼쳐져 오는 19일 '콰르텟엑스'가 출연 공연



해설이 있는 브런치 콘서트 '조운범의 파워클래식-음악사의 하이라이트'가 오는 19일 오전 11시 경기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조운범의 파워클래식-음악사의 하이라이트'는 현악사중주단 '콰르텟엑스'가 출연 해 공연한다. '콰르텟엑스'는 제1바이올리니스트 해설가, 베스트셀러 저자로도 유명한 조운범이 이끄는 현악사중주단이며 제2바이올리니스트 양승민, 비올라의 김희준, 첼로의 임이랑과 팀을 이루는 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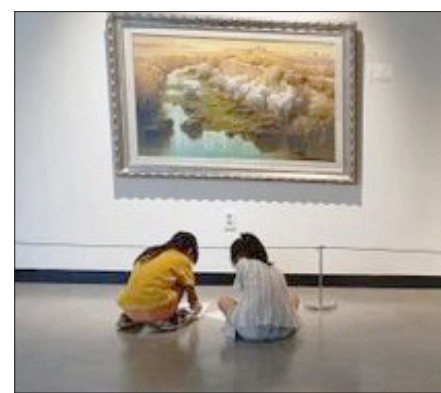
2005년 '동영국제음악제'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고 영화 '호로비츠를 위해', 수많은 라디오와 방송에 출연해 화려한 연주를 보여준 이력이 있다.

공연은 비발디 '사계', 차이코프스키 '사랑요정의 춤' 등 바로크 음악부터 낭만주의 음악까지 유명 서양 클래식 작곡가들의 대표곡을 시대별로 연주

해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운범의 해설과 함께 음악사의 하이라이트를 사진, 영상 등 친근한 매체를 활용해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에 한층 다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산/이승배 기자

화순군립석봉미술관, '동구리 어린이미술학교'

초등 겨울방학 미술교육프로그램 창의적 다채로운 미술 활동 운영



전남 화순군은 화순군립석봉미술관에서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동구리 어린이미술학교'에 참여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순군립석봉미술관 동구리 어린이미술학교는 내년 1월 7일부터 4주간 진행되며 '교과서를 나온 미술 이야기'를 주제로 틀에 박힌 교과서 속 미술수업이 아닌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미술 활동을 운영한다.

동구리 어린이미술학교 접수 기간은 12일부터 31일까지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화순군립석봉미술관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경우, 누리집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수강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이메일을 발송한 후 전화

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수강 신청이 완료된다.

총 4차시의 수업으로 진행되는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교는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는 생활 속 미술의 발견, 먹과 색을 이용한 오색빛깔 전통 민화 그리고, 사진작가가 되어 이야기가 담긴 사진 작품 만들기,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추상미술을 살펴보고 소리를 이미지화시킨 추상미술 표현하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화순/김영일 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사장: 김영근 / 편집국장: 정재두

서울본사: (우 08639)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동) 시흥유통상가 12동 106호

경기본사: (우 14220) 경기 광명시 오리로 970 크로앙스 (광명동) 2층 201호

대표전화: 1899-9659 / 2009년 4월 20일 창간

편집국: 02-2612-2959 /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 가50079

이메일: ekwk44@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sujuin004344@hanmail.net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좋은사람들의 **평화도시** **Hi 연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천군수가 인증**

명품 브랜드로서 **품질의 우수성 보증**

북쪽의 깨끗한 물과 남쪽의 비옥한 토지에서 정성들여 생산된 **청정지역 우수 농/특산물**

DMZ 청정 연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남토복수
연천군수인증

연천군

독도, 일본주장 왜 허위인가? II

“독도, 일제강점과 관계없다?”

독도가 일본 침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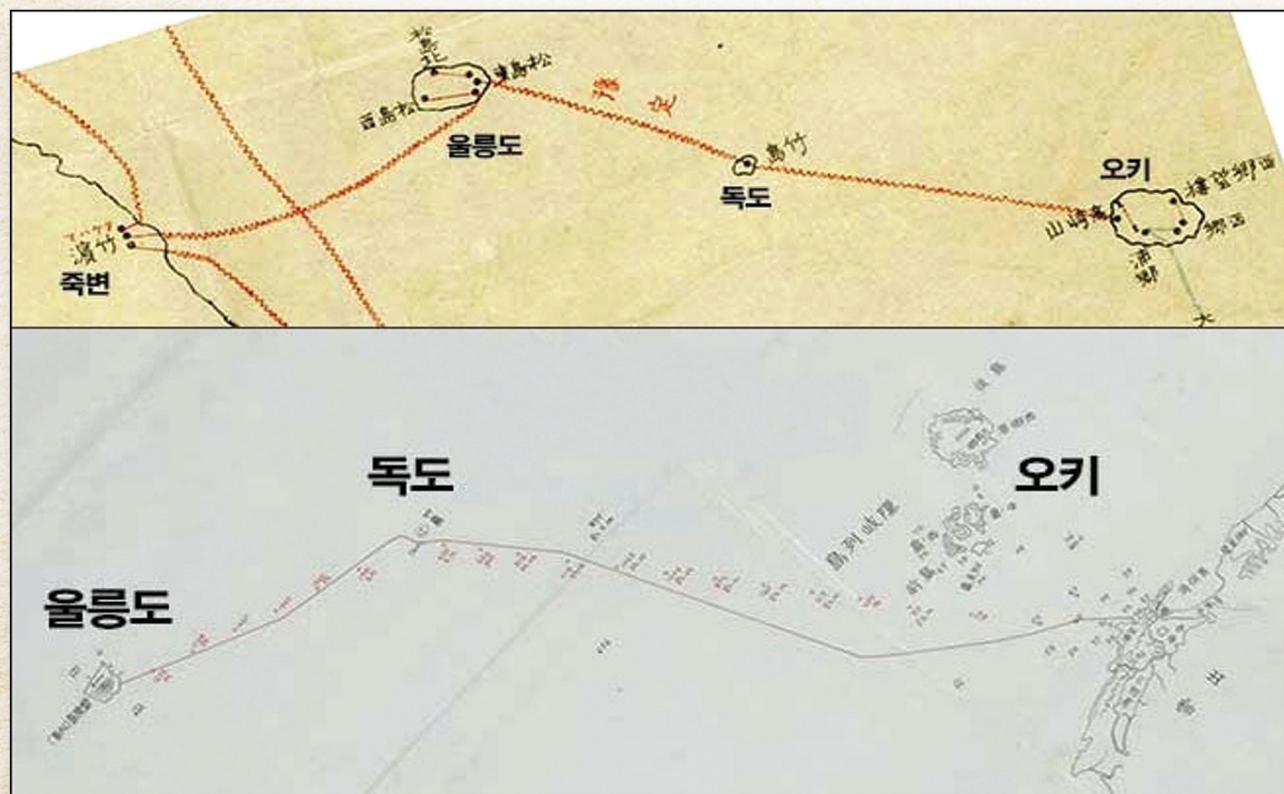


첫 희생물이 된 경위는 이렇다



독도 가설 망루건설물 배치도

※망루는 현 독도경비대 막사, 감시소는 현 독도 등대자리



해저전선 부설도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러시아 함대가 동해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로 한다. 일본 해군은 1904년 9월, 1905년 1월과 6월 등 수차례에 걸쳐 군함을 보내 독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러시아 군함이 독도 부근에 표박해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일본 해군은 7월 25일에 망루 공사를 시작해 8월 19일부터 망루를 가동했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독도-오키(隱岐)를 잇는 해저 통신케이블 부설공사를 추진했으며, 독도에는 관측병 등 4명의 군인이 체류했다. 시마네현은 망루 설치 과정에서 강치잡이업자 나카이 요사부로를 앞세워 독도를 무단 편입했다. 망루요원은 러일전쟁 종전 후 10월 24일 철수했으며, 해저케이블은 1945년 패전할 때까지 운용되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이미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의정서에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기(隨機)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